朝鮮日報 夕刊 十九日(木) 本紙朝夕刊十二面

國府의親英米蘇派 日中交涉의斷絶을策謀

川越、張群第八回會見압두고 綏遠事件을理由로

【東京電話同盟】國民政府는 今回의 綏遠事件을日本의 使嗾에 依한것이라고 思惟하고 日本側이 모처럼誠意로써 日中交涉의 圓滿解決에 努力하고 잇슴에도 不拘하고 中止를 策하려한다는 綏遠에對하야 日本外務省에서는 아직川越大使로부터 情報가업슴으로 右와如한 中止說이如何한 意圖에서 出發할것인지 關知할바가아니나 中國側이如斯히 不可解한 行動을取할境遇에는 交涉決裂의責任은 모다 中國側이 負擔할것이며 이에依하야 發生할 事態는 一切日本側이 關知할바가아니라는 强硬方針으로써 國民政府의 態度를 注視하고잇다 卽 中國側의 親英 米 蘇系로 觀測되는 孔祥熙、陳立夫 宋子文一派가 今回의 綏遠事件背後에 日本이잇다고 宣傳하야 此를機會로 張群氏等親日派를 誅陷하야 南京交涉을斷絶케하려는 策謀이잇는것은 首肯할수잇는바로 目下의機會에 言論通信機關을使嗾하야 全國的排日空氣釀成과 傅作義氏等에對한 義捐金募集에 努力하는等의事實로 察知하면 交涉中止說의 擡頭는單純한 제스추어만으로는 볼수업다 따라 南京政府가 右와如한 中止方針을取할는지도 알수업다 그리고 其秘鑰은 一昨太原에서蔣介石氏와 協議하고 其對策을바다 十八日 南京에歸還한 高亞洲司長이 쥐고잇는 模樣인데 何如튼 交涉은 重大岐路에 逢着하엿다하야 川越、張群第八次會見을 압두고 中國側의 策謀를警戒하는同時에 南京政府가牽强附會의 行動에 依하야 交涉決裂을 策한다고해도 日本側은 終始如一한 態度로써 이에對處할것이라고하는 模樣이다

平地泉에 蘇開元部隊增援

【上海十七日發同盟】綏遠方面에서온 情報에依하면 蒙古軍은 十六日午前午後二回에亘하야 平地泉北方三十中里弓溝方面에 空襲을 企圖하엿다 綏遠省主席傅作義氏는 麾下 張承緖氏로부터 平地泉防備가 薄弱하다는 報告를接하고 새로 蘇開元氏를 平地泉守備司令官에 任命하엿다 蘇司令은 騎兵部隊를 引率하고 이 平地泉에 到着하엿다

話題新說 綏遠의紛爭

◇ 目下 內蒙古의 綏遠省을中心으로한 省主席傅作義軍과 親滿的인 蒙政會系의 李守信軍의 衝突은 日中交涉에 새로운 暗礁가 되고잇다 蔣介石氏가 洛陽에서 急遽山西省의 太原으로 出動하야 山西省의 傅作義軍援助를 指示하고、綏 … 에 依하야는 中央軍의 飛行機二百餘臺도 出動할 形勢에잇슴으로、戰火가擴大되는날에는內蒙古의 事態는 全般的으로 擴大될 可能性이잇다。

◇ 國民政府는 綏遠의紛爭은 日本側의 使嗾이라고 解釋하야 日中交涉은 이問題가 解決될때까지 無期延期하겟다는 意思를 表示함에까지 이르고잇슴으로、國民政府는 이問題를 大端히 重大視하고 잇는모양이다。

◇ 이번紛爭의 原因은 簡單히 說明하면 目下 內蒙古에는 蒙古人의蒙古를 主張하는 親滿的인 李守信等의 蒙古軍首領이 德王을 推戴하고 南京政府勢力에서 全然히 離脫하려는 蒙政會를 中心으로한運動이 잇는데 綏遠省主席 傅作義는 國民政府의 指示에依하야 積極的으로 이運動을阻止하얏기때문에 其間에 軍事的衝突을 惹起케 된것이다。綏遠省은 內蒙古의 一部로直接外蒙古와 相接하얏關係上 對蘇關係로 重要한地點이오 또 南으로 山西省과 隣接하고 東으로 察哈爾省과 接連되여잇는만큼 軍事的地理的으로 極히 重要한地點이다。內蒙古는 熱河、察哈爾、綏遠、寧夏四省으로 되어잇는데、熱河는 滿洲國에 編入되엿고 察哈爾省은 實際 政務委員會의 管下에 特殊取扱되고 綏遠은 現在는 最近 國民政府에 依하야 組織된 綏遠省境內蒙古政務委員會에서 管理하야 內蒙古의 國府離脫을 積極的으로 阻止하고잇는 것이다。

外地特別會計繰入金 一千二百萬圓으로決定

拓務外地聯合協議會서

【東京電話同盟】外地特別會計의 一般會計繰入問題에 關하야 荻原殖產局長은 十八日午後大藏省을 訪問하고 外地側의 意向을 傳達한後 最高一千萬圓程度의 繰入金을 應諾할 意思가잇다는 旨를 表示하엿는데 大藏省은 이에承服치안코 一千五百萬圓의 繰入을 要求하엿다 따라 拓務省에서는 同日午後六時부터 內外地聯合協議會를 開催하고 繰入金額에對한 最後的協議를 進涉하야 拓務省側荻原殖產局長 杉田司計課長 副島會計課長 外地側林朝鮮財務局長 嶺田臺灣財務局長 三東樺太廳務部長이 出席協議하엿는데

一、大藏省當局이 外地의 特殊事情을 認識하고 當初의 三千萬圓程度의 要求를 半額程度로 節減한 事情에 鑑하야 一千二百萬圓의 繰入을 斷行할事

一、繰入額은 外地의 特殊事情에 立脚하야 第一次的으로 今年度剩餘金中에서 充當할것

等을 協議하고 同九時散會하엿다 그리고 同日協議會에서 最後的決定되지 못하엿슴으로 各外地에對한 割當額은 決定치안햇스나 拓務省으로서는 今週中에 大藏省當局과의 事務的折衝을 終了할수잇스리라고 觀測되고잇다

人事·集會

▲朴榮喆氏(商銀頭取)西鮮出張中이든바十九日歸任
▲徐廷禧氏(東一銀行安城支店支配人)新任人事次 來社
▲吳世元氏(東一銀行支配人代理)同上
▲李正燮氏(東一銀行副支配人)同上
▲徐椿氏(本社主筆)講演次十九日午後十時五十分京城驛發海州에

高宗武氏 川越大使訪問 綏遠問題言及

日中交涉에미칠重要性을强調

【南京十八日發同盟】蔣介石氏의 日中交涉에 對한 指示에 基하야 開催되엿든 外交部의 重大會議終了後 亞洲司長 高宗武氏는午後四時 官邸에 川越大使를訪問하고 蔣氏의 意向을 詳細히傳하는 同時에 國民政府의 態度方針을 率直히 披瀝하고 綏遠問題에도 言及하야 約一時間에種種懇談을 遂하고 高氏는 繼續하야 須磨總領事를 訪問하고 同樣으로 全面的協議를 行하고午後六時三十分辭去하엿다 右綏遠交涉에서 日中雙方의最後的 主張도 大略明瞭하게되엿슴으로 同問題의 發展이 中國側一般輿論을 依然硬化시켜 國民政府로서도 자못 苦慮에陷하게되여 高宗武氏도 右問題가 日中交涉에及할 重要性을 極力强調하고 日本側의再考를 要望한模樣이다

綏遠軍戰線配置

【北平十八日發同盟】蒙古軍의綏遠進擊에 對한綏遠軍의 戰線配置는 大略左와如한 綏遠、山西兩軍을 合하야五個師團約四萬三千에 達하고잇다 卽張家口以西察哈爾省境方面에서도 平地泉包頭에 至하는前線과西方五原에及하는 一大長方陣으로 綏遠中樞部의 交通幹線保持에 全力을다하고잇다

一、傅作義軍第七十三師平地泉으로부터 綏遠歸化城에至하는線을 擔任하고 綏遠東部地方에 根據地를두고 傅作義氏自身이 指揮에 當하는平地泉、綏遠間은 卓資山을 第二根據地로 할 兵力凡一萬五千

二、王靖國軍第七十師、李成達第七十二師 綏遠에서 包頭五原에至하는所謂綏遠西部地方을 擔任하고 包頭、陳拉哈에 主力을 配置한 兵力凡二萬

三、趙承綬山西騎兵第一師 大同을 根據地로하고 平地泉陶林에 綏東으로出動한 兵力四千

四、李服膺第六十八師 高陽을基點으로 興和方面의防禦에當하는 兵力八千

그리고 重要地에는 中央軍에서 配給된 高射砲를備하고 裝甲自動車탕크等으로 防禦에當하는一方 丘陵을利用한 塹壕及鐵條網을 敷設하야 主要地를 包圍하고잇다

別個의懇談會開催 陸相出席問題解決?

議院制度調査會를中心한軍部對政黨關係 圓滿打開策發見努力

【東京電話同盟】議院制度調査會에잇서 寺內陸相의出席問題로軍部對政黨의關係는 자못 險惡하야 其打開에對하야 政府首腦部는 一兩日來 異常히 苦慮하야 十八日午後五時半頃 廣田首相의 官邸에서 會長인 富田氏를 訪問하고 會談을協議한結果 富田會長은 衆議院議長富田氏를 招致하야 三者鼎座協議를 거듭하야 兩氏의 承認을 得한後 어떠한方法으로 다시 富田議長은午後十時四十五分지나 小石川私邸에 政友會의 鳩山總務를 訪問하고 安藤幹事長의 來邸를 求하야 富田議長으로부터 懇談한 結果 貴衆兩院代表委員은 別個의 懇談會에서 軍部代表의 說明을 求하기로 決定하고 安藤을 짓고 十一時지나 辭去하엿다 一方同日夕刻 富田議長과 會見한藤沼書記官長은 同十時二十分 熊田幹事長을 永田町私邸에 訪問하고 富田議長과의 會見內容을 說明하고 政府와 打開策에 關하야 協力을 要請하고 ... 貴族院側委員으로 相當한 熟議를 求하고 「貴族院側委員으로相當人物을選擇하기를바란다」고述하고 約三十分後에 會談을終了하엿다 따라 政府로서는 政黨各派態度決定을 待하야 正式으로 陸軍側과 交涉하야 可及的速히 懇談會를 開催할터인데 一時重大化하리라고 憂慮되든 陸相出席問題는 軍部에 支障이업는限 圓滿解決되리라고 觀測된다

西班牙叛軍政府를 獨、正式承認公表

西政府大使、自發的으로十一月初伯林撤歸

【伯林十八日發同盟】獨逸政府는 十八日午後六時 左의公式콤뮤니케를 發表하엿다

프랑코將軍을 首班으로한政府는 西班牙領域의太半을確保하는 同時에 過去數週間에잇서서의 經緯로 徵하면 殘餘의領域에잇서 責任잇는 政權行使는 云云할수업는것이明瞭하게되엿다 獨逸政府는 以上의事實에鑑하야 프랑코將軍의政權을 承認하고 新政府와 外交關係를 開始하기爲하야 代理大使를任命하기로 決定하엿다 新大使는 不遠한將來에 프랑코將軍政府의 本據에赴할터이며 伯林駐劄前西班牙政府代理大使는 十一月初에 自發的으로 伯林에서撤歸하엿다

伊國도同時承認公表

【羅馬十八日發同盟】伊太利首相은 西班牙新政府承認에關하야 十八日午後五時 公式콤뮤니케로 左와如히發表하엿다

프랑코將軍政府는 바야흐로西班牙領土의太半을領有하고 또事態發展에徵하면 殘餘의領域에잇서 責任잇는行政權行使를 云云하기는 不可能하게되엿슴으로 伊太利政府는 玆에 프랑코將軍의政府를 承認하고 同政府와의間에 外交關係를 開始하기爲하야 代理大使를任命하고 卽時 新政府에 派遣하기로 決定하엿다 伊太利政府는 同時에現在의外交代表를 召還하엿다

墺匈兩國政府도 近日中正式承認

【維也納十八日發同盟】伊墺匈三國代表가 過般維也納會議에서 西班牙革命軍政府承認에對하야協議하엿는데 이미獨伊兩國政府가承認한以上 墺匈兩國政府도 近近 正式承認하리라고 觀測된다

佛內相의死因 自殺로判明

【巴里十八日發同盟】사랑그로內相은 自宅에서自殺을遂한것이 判明되엿다

佛國은依然히 不干涉政策堅持

【巴里十八日發同盟】獨伊兩國政府가 마침내 西班牙叛軍政權을 承認하엿다는報道에 佛國外務省은 維也納會議當時부터 豫想하엿든만큼 조금도놀라는빗도업시 依然 不干涉政策을堅持할 意向이라고觀測되다 但 叛軍政權을 承認하는結果 獨、伊兩國政府는 公公然히 叛軍을 援助하고 카탈로니아政廳에對하여는 自國海軍의精銳를動員하야 隨時『合法的』으로 壓迫을 加할수잇슴으로 바르셀로나 市의 機密에 關心하고잇는 模樣이다 現在쇼탕無任所相은 倫敦에 하고잇는데 佛國政府의 特使로 英國政府와 折衝하야 共同戰線을 베풀고 外交上難局에 善處하리라고 觀測된다

右翼의人身攻擊에 激憤自殺

佛內相의自殺原因

【巴里十八日發同盟】佛國政府는 十八日正午 사랑그로內務大臣의 自殺을 發表하야 左와如히公表하엿다

『사랑그로內相은 十八日 自殺을遂하엿다』

瓦斯自殺을遂한것은 近來政界의 異變으로 異常한衝動을與하엿다 特히 人民戰線內閣은 社會黨出身의 支柱를喪失하야 惜然한「現狀이다 사랑그로內相의 自殺原因은 最近 右翼陣營에 痛한 人身攻擊이 激化한것을苦痛으로이긴結果가 아닌가 觀測되는데 畢竟 左右兩翼抗爭의犧牲이된것이라한다 사랑그로氏는 世界大戰에 當하야 自動車隊員으로 率先第一線에서活躍하엿스나 不幸히 一九一五年 十月戰友遺骸를 救出하려다가 獨軍에게捕虜되엿든것으로 右翼黨機關報는 이事實을 들고 사랑그로氏는 本國軍法會議에서 逃亡犯의 極刑에 處刑되엿소나 大戰終了後 再審에서 容疑바되 佛國에 歸還하엿다 그러나 사랑그로氏는 實은獨軍에 降伏하얏者로 非國民이다라는 毒舌을 弄하고 右翼出身議員도 이에 呼應하야 去十三日下院에서는 빼크알氏가 陣頭에서 攻擊을 集中하고 사랑그로氏에게 暗暗히 그當時의責任을 追及하엿슴으로 僚友의潔白辯明에 努力한結果 最後의 投票로 四百二十七票對 百三票의壓倒的多數로써 右翼의 毒矢를完破하엿스나 사랑그로 內相은 快快한마음으로써 右翼에 굴하지안을것이라고 몰뇌다

聯盟은現政府를 正統政府로看做

【쥬네브十八日發同盟】伊太利政府가 西班牙叛軍政權을 正式으로承認하엿다는 報道에 對하야 聯盟事務局은 聯盟의 領土保全、政治的完整에 關한 聯盟規約第十條의 違反이라고 斷定하고 同時에 西班牙代表의 資格에 對하야 問題가 이러나리라고觀測되는데 聯盟으로서는 現政府를 正統政府로 看做하고 同政府代表로 承認할方針이라고 觀測된다

마드리드의犧牲者 三日間에千七百名

【마드리드十八日發同盟】十七日 叛軍機의 空襲으로 마드리드市內에서 死者 二百五十名 負傷者八百名을내엇다 十五日以來 三日間의犧牲者 合計는 死者五百名 負傷者千二百名의多數에達하엿다 死傷의 大部分은 婦人과少兒들이다

內蒙騎兵部隊 紅格爾圖를攻擊

【上海十九日發同盟】綏遠發情報에 依하면 內蒙古軍飛行機의活動은 十八日에도 繼續되여 同日午後 八機編隊로 綏遠軍의後方陣地에 爆彈을投下하야 多大한 損害를 與하엿다

救護會成立 綏遠剿匪慰勞

【上海十九日發同盟】上海市商會 中國赤十字會、上海市地方協會의 三團體가 中心이되야 組織한綏遠後援會인 綏遠剿匪慰勞救護會는 十九日에 成立聲明을發表하엿는데 虞洽卿、陳光甫、錢新之、杜月笙氏其他 財界敎育界一流人物三十一名이 委員이되여 本格的寄附募集에 着手하엿다 그리고 上海市立學校聯合會에서는 全市學生에對하야 一日銅貨一枚式을 貯金케하야 綏遠軍義捐에 當케하기로되엿다 募獻運動은上海事變當時를 彷彿케한다

蔣氏、太原서 將兵激勵文發表

【上海十九日發同盟】十七日午前太原에飛去한 蔣介石氏는 綏遠各將領에綏遠防備의 秘策을授한後 十八日午後二時半 飛行機로太原發 洛陽에歸還하엿다 그리고 蔣介石氏는 太原에서 大要左와如한『前線各將士에게告하는書』를發表하야 激勵하엿다

山西及綏遠의將領及 兵士는모다國家의 最前線에서서 奮鬪를繼續하고잇는것은 余의欣快不堪하는바이다 蒙古軍의綏遠襲來는 事態가極히 重大하나 中央에서는 이러한事件을 豫期하고 準備를 整頓하고잇다 그리고 愼重한態度로써 事에 當하여잇다 滿洲事變以來 中國은 不斷한進步를 遂하야 近代國家로서의 基礎를牢固히하게되엿슴으로 外敵外患、何等恐懼할것이업다

辭令

警察官講習所教授 岩城雜太郎
兼任總督府事務官(四等)
命警務局勤務
府技師 長鄉衛二
兼任總督府技師(三等)
命內務局勤務
全南郡守 吳永錫
依願免本官
道廳兼道警部 玄錫虎
任郡守(七等)
命全南和順郡在勤
道廳兼道警部 高橋止
任道理事官(七等)
命平安南道在勤
咸南北靑郡屬 韓鐸琳
奏任官으로待遇
全南咸平郡守 南啓龍
命全南谷城郡在勤
全南求禮郡守 金泰年
命全南咸平郡在勤
全南長城郡守 李鍾洙
命全南求禮郡在勤
全南和順郡守 朴晶昱
命全南長城郡在勤

本社參觀

▲新義州高普校生二十二名 李一成氏引率下 本社見學
▲新設學院生徒二百名 金仁洙氏引率下本社見學

八面鋒

京城府內의失業者가 七千百名! 千萬의說合、官廳調査만보면 天下泰平이오。◇

細窮民이 九萬八千이라는데、失業者가 一萬도못된다하니、不幸中 多幸이라할가。◇

적고만코는 調査方法問題이니 是非를暫間떠퍼두고、이數字만가지고도 엇더한對策이잇나。◇

區域擴大도 都市의成長을意味하지만 住民生活의 向上이야말로 정말都市成長의要素。◇

大京城에 無住所家屋이 一萬七百戶、壓弁箱업는집이 四萬四千戶。◇

皮相한이야기는 材料부터업시해야될것。府民諸君、우리生活을 우리가 좀더向上식힙시다。

流行歌 시달닌가슴 貝子의사랑 蔡奎燁吹込 콜럼비아레코-드 其外傑作盤의 十二月新譜發賣

不老長壽 强精回春 更少幸藥 百補丸 京城堅志町 平和堂 一劑十円

醫師試驗準備書 스키-포마-드 艶出し

로-스킹구림 ROSE KING CREAM 適症美顏(미안여드름) 雀斑(죽은깨) 製造元 バンス(빤쓰)製藥所 平壤府水玉里三三 總發賣元 株式會社 柳韓洋行 京城府西大門町二ノ七 振替口座京城五一一八

十二月新譜 總傑作의 豪華陣! 新俗謠 沙漠의旅人 李圭南 新梅花打鈴 방아찟는색시노래 金玉貞 流行歌 님그리는밤 金安羅 浦口의落照 薛道植 讚頌歌 깃부다구주오섯네 내주를갓가히 朴景姬 빅타-大衆盤一枚一圓 興夫傳 제비路程記 李素香 긴雜歌 풋고초 金玉葉 具載會 映畫解說 淑英娘子傳 金永煥 洞簫獨奏 진양 평타령 鄭海時 빅타-레코-드

◆演說の事なら何んでもわかる— 雄辯の秘訣を公開す 式辭と演說挨拶の仕方 今や言論の時代 雄辯家 定價一圓 發賣元 大阪 東淀川區西町 現代出版社 振替大阪五六〇一

堅實職業 紙袋製造는 家庭에서男女不問 簡單하고 確實 引受 太陽社營業部

外科 X光線 醫學博士 鄭求忠 京城鍾路三丁目十六 (入院室完備) 電話光化門六八五番

恩給 京城 鄭商會

株式名義書換停止公告 來ル十二月一日ヨリ定時株主總會終了ノ日迄株式名義ノ書換ヲ停止致候 昭和十一年十一月二十日 朝鮮信託株式會社

遺産回收訴訟劇에 十萬圓騙取嫌疑

"말성"의記錄짓는母子의運命!

裡里署活動開始 朴小植引致取調

再登場한李洙倬

【裡里】팔년이라는 기나긴세월을 미결에서 신음하며 친부를 시살하엿다는 죄명을 뒤집어쓰고 사형이냐? 무죄냐? 하는 기로에서엇다가 애매한 누명을벗고 청천백일하에 재생이되여나온 전북익산군려산출생(全北益山郡礪山出生) 리수탁(李洙倬)에 대한 기억은 아직것 세간의 이야기에서 살어지기도전에 전기리수탁에게 대한 화제하나가 연출되야 세간의 이목은 또다시 이리로집중되기시작한다고한다 리수탁이가 무죄백방이되야 감옥문을 나오든날부터 자기 아버지 유산회수문제는 여러방면으로 문제가되여 나오든중 마침내 사백사십삼인을 상대로 소송문제를 이르키고 사건일체는 대구(大邱)에서 모변호사에게 일임을하엿다는바 그동안 사백사십삼명의피고와 리수탁과의 사이에는 전긔유산회수문제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겟다는 조건으로 지금까지 편취한돈이 전후 십여만원에 달하엿다는바 리수탁은 취하를하겟다고 취하장에 날인(捺印)을 할적마다 실인(實印)을 울치르지안하고 가인(假印)을 눌럿슴으로 사건취하가 성립되지도 안하고 돈만소비되는것을 피고측에서는 분개하면이고 경찰당국에 이전후사실을들어 고소를 제기하엿슴으로 리수탁은 조직적으로 사기를 계획하엿다는죄명으로 다시 법망에걸리게되엇다는바 리리경찰서에서는 이사건을철수하자 현시 대구부서성정일백삼번지(大邱府西城町一〇三番地)에 가주소를 두고잇는 리수탁과 그의 실모인 박소식(朴小植)을 구인하여다 리는 의리를대구경찰서에하여온중 리수탁은행의불명으로 구인하지 못하고 그의실모인 박소식만을 지난 십사일에 리리경찰서로구인하여다가 공모로 인정하고 방금 절대비밀리에서 엄중한취조를하는중이라고한다 그리고 지난 십팔일에는 대구로부터 전기소위 사백사십삼명에대한 소송사건을 위임마터가지고잇는 담임변호사모씨가 리리에와서 리리경찰서 흑전사법주임(黑田司法主任)을 방문하고 이사건에대한 최선의처치를 원하는일방 박소식을 면회하도록원하엿스나 리리서에서는 당분간취조중임으로 면회를거절하고 아푸로 리수탁을 체포하기에 노력하는중이라는바 사건의 주인공이 한동안 세세이슈를 일으키든 문제의인물인만큼 일반은 사건의 전개여하를 자못주목하고잇다고한다

(박소식)

(리수탁)

全線列車時刻改正

十二月一日부터實施

超特急은『아까쓰끼』로命名

各線列車增發、時間短縮、開通線時間新定

철도국에서는 최근관부간(關釜間)에 대형련락선의 취항이잇고 일만(日滿)량국간의 련락이 더욱 긴밀하야저서 객화(客貨)수송량이 격증하엿슴으로 수송력의증대와 렬차증발에 의한지방교통의 개선 렬차속도의 가상 수송계통의 정비등으로 이에 적응한 개정을가하야 오는십이월일일부터 전선(全線)렬차의시각개정을 행하게되엿다 이번개정은 전회시각 개정후 만이개년이상이 경과하엿스며 렬차운전거리에잇서 신규개업선의 신설렬차를 가하야 광궤선(廣軌線)의 하로동안운전하는킬로수는 약구천 오백 킬로의 증가를보게된 세음이다 금번개정의 요점은

一、旅客列車關係

(가) 京釜、京義本線

(가) 京釜關特急列車의新設

관부간의 대형선취항으로 객화의 원활한소화를하기위하야 특급열차일왕복을 신설하엿다 이렬차는 현행칠, 팔렬차보다 한시간이단축되며 도중정차는 대구(大邱)대전(大田)뿐이다 그리고 이번초특급렬차는『아까쓰끼』(あかつき)라고 명명하엿다

(나) 경성 평양사이에 직통렬차를 신설하야 지방손님의 편의를보아주는외에 또『노조미』의 완화를 도모하엿다

(다) 경성 토성(土城)사이와 정주(定州)사이에 일왕복의 구간렬차를 증발로특하엿는 교통량이며 경독관계등을 참작한것이다

(바) 부산(釜山)안동(安東)사이에 부정기급행렬차를 신설하엿는데 그것은 관부(關釜)간대형선(大形船)의 야항편(夜航便)의 손님들을 예상하고 그계승렬차로서 또는『노조미』의 손을 완화하는 뜻으로써인데 이렬차는 상당히 먼저 이를 널리팡고하야 일반이 철저히 잘알게하도록 힘쓰기로 하엿다

이상의것 이외는 주요려객렬차의 계통과전반적 배치에는 큰이동이업다

二、京元、咸鏡線

경성 함흥(咸興)간과 성진(城津)청진(淸津)간에 일왕복의 려객렬차를 증발하고 이상등 침대차를 련락하야 야행렬차인조건을 구비케하엿다 현행제오백일호 제오백이호 제 오백삼호 제오백사호 제오백오호렬차의시간을 고처서 단축식혓고 성진과 단천(端川)간 이왕복 원산(元山)고산(高山)간일왕복의객화(客貨)렬차를 증발하엿다

三、全羅線

십이월십륙일부터 곡성(谷城) 순천(順天)간도개통되여 리리방면과 려수(麗水)방면을맷는 철경이 되여 려수 대전(大田)간은 두시간이나 단축되도 또리리에서 호남선렬차에 접속되는 리리ㅣ려수간 직통려객렬차를 배치키로 하엿다

四、東海南部線

관광로선인 면목을 발휘키위하야이선이비교적 단구간인데도종래 네시간이던것을 세시간으로 한시간이나단축하엿다

또 제일편계렬차는 종래 울산(蔚山)이 종점이던것을 경주(慶州)까지 연장키로하엿다

그리고 본개정과함께 철도선에서도 련락선의시간을 다음과가티 개정하기로되엿다

第七便 釜山着 午前六時

第二便 釜山發 午前十一時四十五分

貨物關係

(가) 急行貨物列車의創設

만주행(滿洲行)화물의 격증으로 부산(釜山)안동(安東)간에급행화물렬차를 창설하야 종래보다 일주야간반을 단축하게되엿다

(나) 京元、咸鏡線의貨物列車配置

화물렬차의 배치를 변구어경성(京城)청진(淸津)간에 두왕복 직통화물렬차를 배치하엿다

(다) 其他混合及貨物列車增發線區는다음과갓다

平壤、鎭南浦間 一往復
〃 、新義州間 〃
〃 、球場間 〃
城津、明川間 〃
吉州、惠山鎭間 〃
麗水、光州間 〃
光州、松汀里間 〃
裡里、全州間 〃
全州、南原間 〃
釜山、蔚山間 〃

新京釜山間(上)

安東釜山間 新設 / 京城釜山間 新設

驛名 \ 列車番號								
新京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奉天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安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平壤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開城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京城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水原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天安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列) 大田에서一列車가될 / 大田에서三〇一列車로부터客車分割 / 一〇客車全車編成함 / 木浦着

釜山ㅣ新京間(下)

京城釜山間新設 / 釜山安東間新設 / 釜山大田間新設

驛名 \ 列車番號	特17	急客7	急1007	客5	客9	急客1	客11	客3	客302
釜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天安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水原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京城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湖南線: 京城 / 大田 / 裡里 / 松汀里 / 木浦 — [illegible]

大田에서三〇一列車로 全客車編成

咸興京城間新設

驛名 \ 列車番號			
京城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龍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福溪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元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咸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新北靑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城津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輪城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淸津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會寧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南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羅津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京城咸興間新設

驛名 \ 列車番號				
京城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龍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福溪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元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咸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新北靑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城津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輪城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淸津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會寧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南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羅津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驛名 \ 列車番號	7	◇1007	5	9	1	3
開城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平壤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安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奉天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新京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田으로부터第一列車客車全編成一部聯結함

鍾路通에轢人事故

십팔일 오후려시오십분경에서 내종로이정목 십삼번지압해서 시내죽첨정(竹添町)오십번지 남본(楠本)상점자가용자동차 경(京)일백칠십삼호에 시내충신정(忠信町)사십삼번지 정원손(鄭元孫)이 자전거를타고 가다가 치여서 머리를상하고 곳부근 민중(民衆)의원에 입원하엿는데 전치십오일의 부상이라고한다

怪!原因不知의 洋人生徒自殺

【平壤】십팔일아침 평양부내보통문(普通門)부근 경성과평양간 복십사킬로되는 서평양역부근선로에서 서양사람이 긔차에치워 죽은것을 통행하는사람이 발견하고 평양서에 계출하여 검시한결과 이양인은 방금평양부내 경창리(景昌里)양인학교(洋人學校)고등과일학년에재학중인『엘엔로버ㅣ트』(ROBERT)로 판명되엿다

이소년은 중국산동성지ㅣ프(山東省芝罘)에원적을두고 평양에와서 긔숙사에 드러잇스면서 공부하고잇는 학생으로 무슨세상에대한 비관이잇섯슴인지는 몰라도 항상근심하는빗으로 지내엿스므로 교장『라이널』씨와교원들이 위로를하여오든중 십칠일 오후일곱시경에 긔숙사에 잇지안흐므로 행방을 차젓스나 활동사진 구경을 간줄 알고잇든중 이러튼의자살을 한것으로 판명되엿고 자살의원인은아직까지알수업다

급속히 "제ㅣ트"에전보를처서 부모가오기를기다려 장식을 하기로되엿는데 자유사상이 팽창하고 주위의 속박이업는미국인으로서 자살을하엿다는것은 처음되는일인만큼 상당히이야기거리가되여잇다

空前의大金塊密輸事件

俎上의『德力』『石福』

本町署의追及猛烈

密輸總額二千萬圓假量

재난 구월십오일 황금정이정목 서북광업주식회사(石福)에관련한 금괴밀수출(金塊密輸出)탈세(脫稅)사건과계 거일금명을 경성지방법원검사국에 송국한 본정서에서는 검사국의주밀한 지휘아래 재차활동을 시작하야 시내명치정(明治町)일정목오십구번지에잇는 일본전국에서도 제일큰지금상덕력(地金商德力)을 내사하여오든바 전긔석복공국후 두달을 마지하는 십칠일밤 동서사법주임이견경부(司法主任二見警部)가 지휘하는 형사대는 긴장한활동을개시하야 동회사지배인 수야삼랑(水野三郎) 사입부장소제민(仕入部長小諸敏) 서무주임 산긔일이(庶務主任山崎一二) 공장장 야택금차랑(野澤金次郎) 서북지배인 미긔준랑(尾崎俊郎)의 더러점원여섯명 합계열한명을검거투지하고 준엄한 취조를하는중이며 동경에 피신중이든동사장 산전황(山田晃)씨외하명도 동서의 수배에의하야 경시청(警視廳)에 체포되엿다는 입전이엇슴으로 불일내로 압래(押來)하리라고 한다

사건의 내용을 탐문한바에의하면 이회사는 동경에잇는 덕력과는 별개회사이나 밀접한관계를 가지고잇느니만치 거대한 자력을 배경으로 동경(東京)봉천(奉天) 대련(大連)등지에잇는 지금상과 밀접한 관계를 매저가지고 수년을두고 금괴밀수출(金塊密輸出)을 하여왓스며교묘한수단으로 탈세(脫稅)를 하야 거리(巨利)를 보아온점은 석복사건과 동일하나 그금액으로 보아지금판명된것만 칠팔백만원이란거액에달하며 취조의 진행에따라서는 수천만원에 달하야 실로 공전의 대밀수사건(大密輸事件)으로 확대될듯하며 따라서 검거의범위가 어느정도까지 넓어질는지 예측키어렵다고한다 그리고 덕력과 친속관계잇는 동경모대지금상이 이사건에 얼마나 관련을가지고 잇는가 자못주목을 끄으는바라고한다

寫眞說明 우의사진은 문을다친"덕력"의외면은"석복"의 바른편은"덕력"정문에부튼 림시휴업패

天氣予報

槪況 高氣壓은 蒙古와滿洲사이에七七五粍을 示하고그후부터氣壓은 [illegible]을지나면서점점약하여지고잇스며 日本內地에는 小低氣壓이잇다 滿洲와朝鮮은 日氣가 조흐며 新京과哈爾濱은 小雪이잇슬模樣이다 [illegible]은 흐리고 北風이强하여 [illegible] [illegible]은어적게아침부터는三度假量내린셈이다 日本內地는 비가오신다

豫報 오늘밤京城地方은 날이조와지며 [illegible]明日도갓다

昨日最高 一二度〇
昨日最低 六度三
今朝最低 一度五
今日正午 六度六

高血壓腦溢血中風

술과 담배 어째낫뿐가

血液이濁하고循環이낫버진다

술을먹으면 혈액이탁하고 또주독이혈관의내벽에침착하야 동맥이강화하고 혈행의 순환이낫버저서혈액이하치진하고 뇌일혈 중풍의 원인이되는것을 톡끼에게 알콜을注射하야보주혈액이탁하고 동맥벽에 악변화를이르키는실험으로증명되고잇다。

연초도가튼영향이잇다처음에는어것을 그대로두면 심장병나뇌일혈이돌발하야 밧처볼수업는중풍이되다。

종래의치료법은 단지 [illegible] 평창식혀일시혈압을나리게할뿐이엿스나 今村분의 [illegible]博士는、귀중한식물호르몬을응용하야

이와 전해 [illegible] 근본이되는 [illegible] 신약시ンアイマツ를 완성하엿다 [illegible]

여기에와서、어혈、두통、어지럼、피로、불면、손발이 저리는 등을 [illegible] 수족마비등을 당하게된다

[illegible] 고본제를복용하야 혈액을정화하면 의혀구등、수족마비는물론、반신불수도점점나어간다、이런병이잇는사람은누구나복용할 リキシン은 [illegible]藥房에잇슴 大阪市大仁今津化學研究所로朝鮮日報名記入申込하면혈액정화료법과설명서를보냄

독일コッホ박사신발명한폐병균엔

肺病新藥 유ー고ー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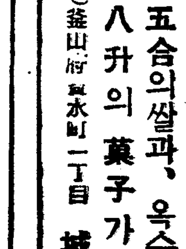
폐병은뇌점 [illegible] 독일コッホ박사가 세계적 위업을 [illegible] 결핵균이잇다。[illegible]

[illegible] 肺藥『유ー고ー루』를 [illegible]

京城府苑南町一二九 發賣元 有恒社藥品部 電話光一四三〇番 振替京城七九五六番

有名藥房에서販賣함

리ー도式



돈버는機械 五合의쌀과、옥수수가 八升의 菓子가된다 (定價表進呈)釜山府寶水町一丁目 城野製作所

淋疾根治藥 トリコノール

煩悶에서幸福

이藥은 [illegible] 煩悶으로苦痛하시는분은一時라도주저하지마시고最新科學의特産物인「トリコノール」를 써보시요

◎宣傳特賣!

特賣期間 自十一月十日至十二月末日

甲 三〇錠入 一、八〇
乙 五〇錠入 三、〇〇

先着一萬人限 二日分無料贈呈

一、甲一日 乙一日量上에對하야
二、期限內라도一萬人에至할時中止

二日分服用하야無効면返品하시요卽時返金합니다

製造發賣元 太陽製藥社 京城府內需町八三 電話(3)一八四九番 振替京城一三五六七九番

癩病

[illegible] 癩病은不治病이라고한다 [illegible]

其他一切慈養食物로 [illegible]

釜山府草梁町 [illegible] 回春藥院

癌科 라듸움科 京城婦人病院 顧問 [illegible] 院長 醫學博士 [illegible] 電話本局(2)〇四八二一・三八九二番 京城北米倉町九四

咳止め ぜんそくに ベルマン 唐澤醫學博士推奬

기침藥의欠點을…除去한 安全良好한新製品

中毒作用이업고、기침과痰을멋게하고護作用을緩和식혀苦悶을輕減한다도 心臟保護作用이잇서 感氣는勿論、喘息、百日咳等에가장適當하야老人 小兒에도安全奏効

定價 .30 .50 1.00 2.00

各藥店에잇습니다

新興キネマ [illegible] 十一月廿日부터 [illegible]

宇島の [illegible]

現代名篇 月よりの使者 入江たか子 高田稔

光武劇場

十七日より六日間 [illegible] グレエ・ファイル [illegible] ロベエル・ルヴィギャン 主演 ゴルゴタの丘 P.C.L特作 千葉早智子 大川平八郎 主演 ▲東日・大毎 ニュース漫畫 大人・五〇錢 小人・三〇錢 最新式

若草映畫劇場

訃告

老病으로呻吟하시든 釜山府草梁町金成道大夫人順興安氏以今月十八日(舊十月五日)午前七時別世玆以訃告

葬地 草梁町共同墓地
發靷 十一月廿一日(舊十月八日)午前十一時

嗣子 金
孫 [illegible]
孫婿 [illegible]
護喪 [illegible]
友人代表 [illegible]

健康素의綜合劑

体力을充実케하고元氣를振起함

胃腸을 튼튼케

專혀食慾의가즐어되면, 胃腸의調整에仁丹을常用함이곡肝要, 旅行에必携品인것도事實!

頭腦를 明朗케

仁丹은、頭痛의混濁을업새고、直時、透徹明朗化한다、더욱頭痛、眩暈、宿醉에는顯著하고即効이다

精力의 補充에

意氣昂進치안코沈滯하야憂鬱한때의回復에仁丹으로補精이가장適確한近代人의要諦이다

口薰과 殺菌에

口中의精妙한香氣는全身에爽脉을펼치며또한口腔殺菌의完全은仁丹의자랑인絶體價이다

仁丹의新成分

이런新藥質을充實하게

男호루몬 仁丹에는 雲山麝香과 가라니의 男호르몬을 包含하야 補精興奮元氣의 充盈等 生活之素인 호루몬의 効果를 仁丹에 賦加한다

비타민 仁丹에는 비타민B를包含하고 消化와榮養吸收의 調節을 効果잇게한다 그리고 비타민B缺乏의諸症 特히 各種脚氣에 有効한 効験을 齎來한다

사후랑 仁丹에는 多量의 사후랑을 包含하고 其特有의 强心作用과 淨血作用과 保溫作用等의 綜合的効果로서 全身的으로 生活機能을 振作한다

朝鮮人蔘 바나궤로及배나구사보계노ㅣ루 仁丹에는 朝鮮人蔘 의有効成分을 包含하고 獨特하고微妙한 增健効果와蘇活作用을 發揮하게한다

其他數種의高貴藥을配劑함

日常不可缺의要藥이된다

新原料

殺菌力 清掃力 에依해

의効果倍加한 專賣特許의齒磨

仁丹齒磨의防腐殺菌消、掃劑

메딜 이ㅣ소 푸로필、엣눌 따라알릴푸로필올드 메라옥시엣눌 齲齒의原因이되는葡萄狀球菌、連鎖狀球菌、齒牙腐蝕桿菌其他脫灰化化膿症狀을誘發하는諸菌에對해、其醱酵를防止코、淸掃撲滅하는卓効를가지고잇는것이다

이

半煉의仁丹齒磨

廿錢一罐마다……仁丹拾錢包 全國各店에서即時로 進呈

그리고

행복ㅣ幸福抽籤券

壹枚式添贈

抽籤後左記大景品進呈

●一等……六百名 불란서人形 萬年筆(펜사ㅣ실푸)兩用 헨드백 文化電氣스탠드 以上希望하는것一品

●二等……千五百名 仁丹洗顔セット 一組宛

●三等……三千名 仁丹化粧麗泉大瓶 一本宛

●四等……一萬八千名 仁丹化麗泉中瓶 一本宛 (右は三百萬本の割合)

抽籤發表 昭和十二年一月下旬・本紙上에

銀粒 仁丹藥價

御試用分(百五十粒)	十錢
富士容器附(三百二十粒)	二十錢
滿洲容器附(四百粒)	三十錢
家庭容器瓶入(九百粒)	五十錢
御德用分(一千粒)	五十錢
御德用瓶入(二千二百粒)	一圓

御德用瓶入(二千二百粒入) 壹圓 家庭에備置하실에는第一經濟的입니다

仁丹本舖・大阪・森下博營業所

요즘流行되는 무서운小兒病●

먼저『띠푸데리ー』

城大小兒科硏究室 李聖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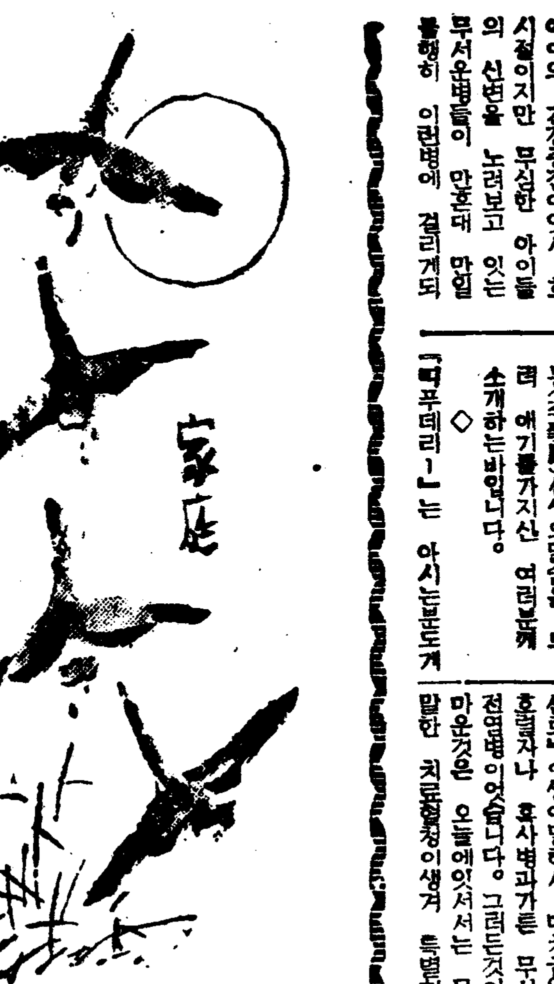
천고마비(天高馬肥)한가을이 갈길도 아프로얼마남지아니햇습니다。가을을 우리는 천고아(兒)비하는조흔시절로도 봅니다。이와가티 아이의 건강증진에잇서 호시절이지만 무서운 아이들의 신변을 노려보고 잇는 무서운병들이 만흔데 만일 불행히 이런병에 걸리게되면 천고아비가 도리혀 천고아척(瘠)이됩니다。그래서 이즈음이기쉬운 소아병과 그주의에대해서 소아ㅅ과의학자로 명성이 혁혁한 리성봉(李聖鳳)선생의말슴을 드려 애기를가지신 여러분께 소개하는바입니다。

◇

『띠푸데리ー』는 아시는분도계시겟지만 서양병중의 하나입니다。우리조선에서 목병으로 사망하는 아이의 대부분이 병이라고 생각하며 좌우간 이병에 걸렷든이는 얼마나 위험한 병인지 잘아실것입니다。본병에대한 「베ー링그」씨의 치료혈청(治療血淸)이 발견되기의 전에는 『띠푸데리ー』의 사망률은 대단히 노파칠십으로부터 팔십「퍼센트」이상에달해서 마치금일의 호렬자나 흑사병과가튼 무서운 전염병이엇습니다。그러든것이고마운것은 오늘에잇서서는 몬저말한 치료혈청이생겨 특별히병 토의 기회를 일흔경우이외에는 거이전부 백발백중 완치될수잇습니다。이제여러분이 참고하시기위해서 『띠푸데리ー』치료혈청이 세상에 나오기전과 나온뒤와의 사망이 얼마나 상위되는기를 수자로 말슴하면

일본내지에서는 명치삼십년이전 본병에대한 혈청료법이 업슬때는 사망률이 사십내지팔십「퍼ー센트」엿든것이 혈청료법을 시작한뒤부터는 사망률이점점감소되여 금일에잇서서는 십내지십오「퍼ー센트」라고합니다。그러나 우리조선에는 아직의료긔관이 보급못되데가 만흐므로 본병에대한 사망률이 더 노흘줄로 생각합니다。우리들의 생각에는 혈청료법에대한 리해가 좀더 진보되면 특히 악성 띠푸데리ー』를 제한외에는 로 사망하는소아가 근절되지안흘까 생각합니다。그러므로 우리는 이병으로인하야 무참히 생될 만흔아이를 구하게한 은인「베ー링그」씨에대하야 우리의 사람만아니라 여러분도 두손을 드려 우리와가티 존경하는것이 맛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병은 소아의 일종염병으로 보며 또통계상으로보아도 어른에게는 극히적고 소아에게 거히 전부발생하며 이제 영국에서 칠만명이나되는 만흔「띠푸데리ー」환자로부터 취한 변령통계와 계절관계를보면 대개두살로부터 오륙세소아에게 칠십「퍼센트」나되며 그리고 그변령을 중심으로 그변령에 점점머러짐을따라 점점감소됩니다。본병은 일반히추울때에 만히발생되는대 특히 이즈음시절에 제일 만히옵니다●



밀감을 먹을때는 손수 껍질을 까자

조금 귀치안코 성가시더라도 ◇조흔약을 남주는셈

기나 긴 겨울ㅅ밤에 입이 출출해 지면 군밤이나 고구마나 그런 것도 해롭지 안습니다。요긔할 목적을 떠나서 그냥 입이나 다시어 보랴면 밀감(蜜柑)도 조흡니다。벌서부터 실과ㅅ가가에는 밀감이 척척 싸히어 잇서서 지나가는 사람으로하야금 군침을 삼키게 하고 잇습니다。좀더 지나서 십이월로 잡아 들면 정말로 밀감맛이 꿀맛가티 맛나게 될 것입니다。그러나 여러분 밀감이 어째서 조코 또 어떠케 먹어서 조흔지 잘 아십니까? 그런 것을 모르시고 가서는 현대녀자의 부끄러움이 아니오릿가?

위선 밀감에는 우리인류의 영양에 잇서 아조 귀중한 비타민씨가 만히 들어잇습니다●예조부터 그것을 만히 먹으면 각긔(脚氣)병에 걸리지를 안할뿐이아니라 벌서 각긔병에 걸린 이로서도 그것을 만히 먹으면 곳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밀감껍질을 벗길때에 껍질로부터 마치 안개가튼 액체가 피어 나오지를 안습니까? 이것이 살에 무더서는 살이 터지지 안는약이 됩니다●살이 터지지 안는 약중에서도 아조 신효한 것입니다。그런것을 잘 모르기들때문에 보통들남을 시키어 껍질을벗기어 가지고 먹는 모냥이아닙니까? 그것은 잘못입니다。밀감은 꼭 자긔손으로 벗기어 먹어야만 쓰는것이올시다。

×

비단 비타민 씨뿐이 아닙니다。그이외에도 밀감에는 여러가지의 조흔 성분이만히 잇습니다。

(一)그 것을 먹으면 식욕이나고 피곤한것이 회복됩니다。

(二)그 것을 먹으면 얼골도 고와 집니다●

본래 아메리카에서는 안악네들이 아침 자리ㅅ속에서 레몬집을 먹는 습관이 잇습니다。그래야만 살ㅅ결이부드러워 진다고 하는까닭입니다。하여튼 밀감을 먹으려거든 식후보담은 식전이 조흡니다。그래서 미용(美容)에 더 조흘찌 까지는 몰라도 식욕을 증진시키는 효과로만도 그편이 유리합니다。식후에 실과를 먹는 것은 소위 불란서식입니다 그것이 파다 조흔 짓은아닙니다。

×

다른 실과는 모르지만은 식욕을 증진시키는 실과는 식후보담 식전이 더 유효합니다。밀감도 역시 그럿습니다。그러나 한꺼번에 몃개씩 먹는 것은 재미업습니다。단 한개나마 아조 정해 노코 끼니전에 먹도록 해야만 할것입니다。그런데 밀감에는종류가 하도 만흐니까 어떤것이 조코 나뿐지를알기가 어렵습니다。그것도구분할줄 아지 못 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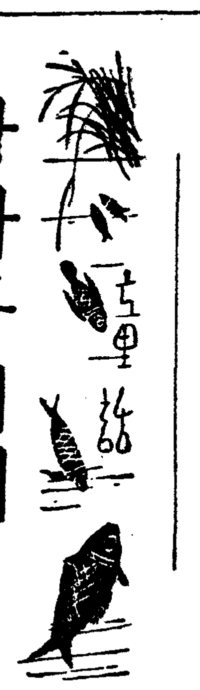
(一)비치 진한 것

(二) 묵직한 것

(三)중간치보담 조금 커보이는 것

왕자와거지 ⑳

마ー크·로웬 作 崔秉和 譯



그러드니 한층웃수면서 「아、꿈이엿구나。」하면서중얼거리엿습니다그때헨돈의옷저고리가더럽혀잇는것을보고는 「너는 참친절한 사람이다。이옷을갓다입어라」하고 이러나서 세수하는곳으로가서 우둑허니서잇섯습니다。헨돈은 그까닭을몰라서 「뭘하고잇니?」하고 무럿습니다。「지금 세수를하라고한다。」 「그럼 얼른허지안코 왜우둑허니 서잇느냐? 내룸긘은 네맘대로써도 상관업다니까──」그때도 우둑허니서잇드니 갑작이 왕왕 마루를구르면서 「얼른 대야에다가 물을따러라。」하고말을드르든 헨돈은기가막혓지만 급히뛰여 가서 그소년의명령대로 물을따라주엇습니다。그랫드니 『애、수건을다구。』하고 소년이말하므로 헨돈은잠잣고 수건을내주엇습니다。소년은 레불아페가서 밥을먹을라고 하므로 헨돈도 급히얼골을 씻고 다른의자를 가지고가서 레불아페안즐라고하엿드니 소년은성을내면서

『무례한놈、너는국왕(國王)아페서 외람히 안즐모양이냐』헨돈은 더욱기가막혀서 입만버리고잇다가

『이미친아이바라。세상일을 곳잘아는데。이번엔금님이도라가신것을알고 벌서 임금님행세를할라드는구나。잘못하다가는 이애때문에 옥에 갓치게될는지도모르겟는걸。하하하。』헨돈은 이러케혼자생각하면서 호기심과귀여움에끌리여서 가저고온의자를 치여놋코는 국왕뒤에서서 공손히 시종을들기시작하엿습니다。국왕은 배불리 밥을먹고나서는 유쾌한마음으로 포도주를마시면서 헨돈의이야기를 드럿습니다。

『폐하! 우리들은귀족(貴族)못자리에 참례하는사람이로 우리아버지는 남자(男爵)이십니다。어머니는 어렷슬때도라가시엿고 우리는삼형제엿습니다。형은성질이조흔편이엿지만 아우는 욕심쟁이고 거즛말쟁이고 내숭스럽고─그야말로 고약한놈이엿습니다。아버지는 망내동이라고해서 아우(弟)를제일귀애하시엿습니다 그래서 휴는 제가 성질이 활발하고 모험을 조와하는이만치 각금 일을 저즐르면 그때마다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하얏습니다。그까닭은 형아ー써는 병이들어 골골하므로 상관업지만 저때문에 제맘대로 모든 일을 못하므로 나를 내쫏츨라는 간사한 꾀에서 나온것입니다。정직하시고 청렴하신 아버지는 몹시화를 내시고 『삼년동안 영국에서 내쫏차버리면은 마음을바로잡으라』하시고 저를 집에서 내쫏츠셧습니다。그로부터 저는 가진고생과 싸우면서 구라파로건너가서 전장에도 여러번나가싸우고 가진모험을 다격근다음 나종에는 적군에 붓잡혀가서 일곱해동안이나 외국감옥안에 갓치여잇섯습니다。나종에 용기와 꾀로 간신히 자유의몸이되여가지고 촉시 이곳으로 도망하야온까닭으로 보시는바와가티 몸이몹시누추하고 수중에는돈한푼업고 거지와가튼 신세가되엿습니다。고향을떠나잇는동안에 고향에는 어떠한일이 생겻스며 또 얼마나변하엿는지 조곰도 모릅니다。

『폐하! 저의 가엽슨 신세이야기는 이러합니다。』군왕도 어제오늘 자기신상에 이러난、불행한이야기를 놀라면서 듯고잇는 헨돈에게 자세히들려주엇습니다。

헨돈은 마음속으로

『보통아이로는 이러케 뿌리도가지도 입사귀도 업는것을 가지고 이러케똑똑하게 말 할수가 업다。이애는 필경 자라서는 이름을 비낼것이 틀림 업다。그러면 나는 코가 웃둑 해 가지고 세상 사람에게 말 할수가 잇슬것이다。옹 그럿지 저애는 내 아들이다。집 업는 거지녀석을 내가 구해서 데불고 왓스니깐。나는 저애가 섭섭한 아이로는 볼수가 업는걸……』

나종에 국왕은 헨돈의 칼을 드려서 억개에다 대고 엄숙한 말씨로 말 햇습니다。

『이러서라。용감한 기사(騎士) 마일스·헨돈、나는 네가 위험한 가운데 잇는 나를 구해 준 그 공노로 내 아페서 의자에 안는것을 허락하는 것이다。우리 나라가 계속해 잇는 동안 너의 집안에는 이특권은 이러버리지 안흘것이다。』

이 소년의 미친증이 낫지 안흘 동안 늘 서잇지 안호면 안 되리라고 실어서 근심하고 잇든 헨돈은 의자에 가 안지면서 자기가 왜 이 거지아이에게 복종하게 되는지 몰랏습니다。자기에게는 이상스럽고 우슴일이지만 저애는 아조 정말가티 알고 잇스니깐 그냥 시키는대로 허리라 헨돈은 이러케 결심하엿습니다。

콜로라튜라·쏘푸라노

朴景嬉孃獨唱會

오는 二十一日밤七時半 府民舘에서

京城女基靑主催 本社學藝部後援

련밥

옛날양반 주머니에
연밥 달엇네。
연밥은 딱딱한열매、
까만 열마구、
앗싹 깨물면
옛니야기 나올것가테。

(글쓴사람 오장환)

유ー모어小說

金姓女씨 (十二)

金熊超 作·畵

戰績의 記錄(6)

『제가 가면 어델갈라구!』하고 세사람은 범인이나 추격하는것처럼 바쁘게 칭게를뛰어나려섯습니다。큰행길에 나서서 아래 웃쪽을 잡시 살펴보앗습니다。그러나몸을 피해 간사람이 그리쉽게눈에 띄울까닭이잇서야지요。

『어데를 갓슬까?』

걱정스러운듯이 관수군이 중얼거렷습니다。

『집엘 갓슬께야。』

태하군이 집을 첫습니다。이때 몽백군은 고개를 갸웃둥하고 잇다가 좌우간 태도를결정하자는듯이

『어쨋든 뜰을 디려논일이니 끗까지 나가보세。제가 어제모양으로 또 박게서 자고드러가지는 못할께고 필시 집으로 갓슬께야。……』

하면서 것기시작햇습니다。두사람도 말업시 그뒤를 따라서대문쪽으로 향햇습니다。

『사직동 어데라지?』

멋거름 압서가든 몽백군이 뒤떠러진 친구들을 기다리며 이러케 무럿습니다。

『그사람집은 박군이 아니까 염녀업네』

박군은 박관수란 말입니다。

『만약에 갓다가 업스면 엇전다구?』

이번에는 관수군이 선봉을서면서 걱정스러운비슬 보엿습니다。그러나 몽백군은

『제가업다해도 오늘밤만으로야 도라올께니、념려말게 우리도 지구전을 해야지』

하면서 기어코 초지를 관철할량으로 자못 비상한 결의를하여나섯습니다。

사직동 몃번지!하면 여러분이 아실수잇겟습니까? 인왕산등마루빼기가 남쪽으로 향해구버가지고 내려오다가 사직공원아프로해서 서대문ㅅ자리 홍파동어구에와서는 꽁지가 톡잘라젓습니다。그런데 거기까지 갈께 아니라 사직공원아페서 외손쪽골목으로 해서 올라가자면 역시그 산ㅅ생이가나옵니다。번지는세사람이 다모르지만 어쨋저나、경성부의 한시민인 장민보군의 주택이 나섭니다。반양식붉은기와집한 문화주택인데 석가래나 기둥에 단청칠만 햇슬뿐이지 연비추드보면 흡사히비둘기장처럼 뒈습니다 가싼 월급쟁이 제주제에 제손으로 버려웬 이런집을 작만햇겟습니까만 자기부인이 친정에서 뜨더오고 민보군은 자기아버지의 가께수리를 뒤저 말하자면 한자를해서지은것입니다(가께수리를 모르십니까 옛날양반들의 가속으로 맨든 금고입니다) 그랫기때문에 문패는 두내외의 이름을 뚜려시 내세웟습니다。

장민보
유정혜

국세조사원이 꽈근치못햇다가는 이세대로알고 휘딱지를 드는장을 부치고갈 우려가 업지아허 잇지요。

그건그러타하고──

세사람은 사직문아페서 꼬불꼬불 골목을 빠져나가 비탈길을 것기시작햇습니다

『여기만해도 교외갓군그래。절차자가는맛이나는데!』

태하군이 중간에서서 가면서 여내 숨을 드려 쉬엇습니다。그러나 심장이 튼튼치못한몽백군은 벌서 액시풀렷는지

『교외고뭐고、나는숨이차서、중되려가는신세처럼 구술프기만하이。』하면서 허덕어렷습니다。세사람이 막 돌덕처럼된데를 기어올라서서 민보군의주택을 빤히바라보게될때 압서가는 양복쟁이하나가잇섯습니다 모자를뒤통수에 부치고 어슬렁어슬렁것는품이 분명히 무슨궁리를하면서 발을내다든모양인데 틀림업는 민보군이엇습니다。

일동의 의기는 드디어 진작되엇습니다

『스토──ㅂ!』

관수군이 소리첫습니다。

민보군이 깜작놀라 도라섯습니다。

──저엉한때들한테 기어히걸리고마럿구나!십흔지 열적게입을 버리고 세사람이 가차이오기를 기다리고잇섯습니다。

『이사람 어데갓다 인제와나』

몽백군은 그숨찬중에도 절내처럼 민보군의목을 끄러안꼬우는 시늉을햇습니다。

그래서 민보군은 더가지못하고 세사람에게 포위된 형세로 풀바테 주저물러 안저버렷습니다

『이사람아 자네혼자 다라낫길래무슨 별수가잇는줄아랏터니코 아래진상으로 속죄를 할작정이엇네그려』

태하군이 어느틈에 보앗는지 민보군의 조히몽치를 재여허리노앗습니다。

계절의 미감을 돕구는 실과 세사람은 뭐가뭔지도 모르고터떠노코 오가로 으드득으드득깨물어먹기시작햇습니다。

『이따위것을가지고 연약외교를해서야쓰나。무력에대해서는 무력으로 해결을 해야지。내생각에는 자네가 수위를 든든히하느라고 격곰복을 빌러입고갈줄아랏네그려!……헤기 이못난사람……』

림질약

淋疾藥

淋疾患者에 엇더한藥이 第一조흔가?

이것은內務省大臣을會長으로하고、醫藥學界의最高權威者十六名을委員으로하야慎重審議를한後그品位를決定하야、日本藥局方에收載하고、또內務省衛生試驗所에서檢査封緘한藥劑가我國藥學界의指針이되야잇슴으로 本社의淋疾藥은、政府指定醫藥學界의最高權威者가選定한日本藥局方收載 그리고 內務省衛生試驗所封緘의治淋劑를王藥으로하고 何等副作用이업도록配劑한公認治淋劑다 淋疾患者는專賣所에여러가지의廣告에迷惑지말고 곳有田도락구로申込하라

淋藥 特別 ○○ 八日分 四圓 / 八日分 八圓 / 德用 十六日分 十五圓

梅毒

本社創劑의 梅毒藥은 政府制定日本藥局方驅梅劑三種과 皇漢藥數種을主藥으로하야 副作用이絶對업는 出願許可實公認檢査藥으로서 긔초의강창、가래톳의 치료는물론、제이긔전신매독、잠복매독、유전매독、매독성루마치스등도본제의내복으로 곳 배독작용(排毒作用)을하며 매독으로 일어나는 불쾌증과 국부와 전신증이 점점희박하여저서 치병의목적을달할수잇다。무서운 매독악손에게 유전치안토록 하로라도 빨리본사의 구매제(驅梅劑)자용하야 고치시라。

藥價 特劑(十七日分)六圓 / 別劑(十七日分)八圓 / 德用(三十日分)十四圓

有田ドラッグ

有田ドラッグ專賣所々在地

京城郵便局前 有田도락구
龍山驛兵營前 有田도락구
平壤本局 有田도락구
釜山幸町一 有田도락구
群山驛前通 有田도락구
全州高砂町 有田도락구
光州本町三 有田도락구
木浦榮町二 有田도락구
大邱弓町 有田도락구
馬山京町二 有田도락구
麗水港 有田도락구
浦項本町 有田도락구
兼二浦本町 有田도락구
鎭南浦漢頭里 有田도락구
海州南本町 有田도락구
新義州櫻町 有田도락구
元山本町二 有田도락구
咸興本町二 有田도락구
羅南生駒町 有田도락구

高價藥配劑公開

肺病 肋膜炎 肺炎가다루 藥

本社에서 發表한肺病肋膜炎의全快者는어느거나左記에公開한 高價藥配劑의別製治肺劑와有田血液藥을服用하면서一方으로 올바른療養으로實際에全快되도록하는것으로서住所氏名을明記하고全快後健康體가되寫眞까지 公表한것으로서正確하고또信用할수가잇다。有田別製治肺劑는歐米는勿論、我國醫藥界의最高權威者들에게서選定된日本藥局方治肺劑와多數高價藥等二十三種의配合에依하야綜合的醫治效能을表顯할여러가지症狀을經快케하는 公認治肺劑이다 現金으로當局의取締가甚히嚴重함으로虛僞又는誇大廣告는絶大的으로不許하니左記의高價藥配劑公開가튼것으로秋毫도虛僞는안이이다

(時價一키로瓦의單價)

結核治療劑 醫藥學界最高權威者選定 政府制定日本藥房收載 五種藥配合劑
鎭咳祛痰劑 一種 七百四十圓 外二種藥配合
結核解熱劑 一種 二百三十圓 / 二種(一種) 三十一圓
強胃强壯劑 醫藥學界最高權威者選定 政府制定日本藥局方收載 四種藥配合劑
食慾促進劑 一種 二百六十圓 外一種藥配合
鎭靜劑 一種 五十二圓
消化劑 一種 四十七圓 外一種藥配合
酵母劑 一種 五圓五十錢
滋養强化劑 一種 五十二圓
호루몬劑 一種 千六百圓 / 二種 千二百圓

本社의藥劑가肺病과 肋膜炎에如何히有效한가를드르라 되는것은食慾이增進되고咳嗽의調整과體重의增加結核熱의解熱가차의稀痰의減退等으로이것은무엇보다도回復期에들엇다는證據임으로放心말고養生하지안으면안된다 速服하야藥効가나타나기始作하면 體重이날마다날마다增加됨으로 늘닭이보시라。

特製治肺(八日分)十九圓 / (八日分)十五圓 / 別製德用(十六日分)二十八圓 / 有田血液藥 四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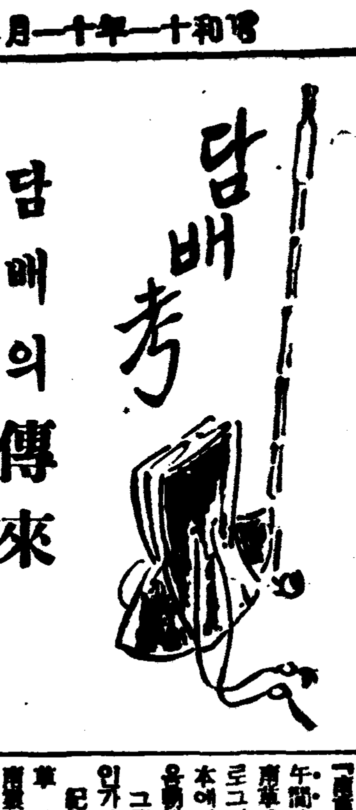
一滴! 恍惚한 바르는 氣分

面刀後의 男性美
그윽한靑春色의女性美
레ー도후ー도의一滴
은살결을고웁게
收斂하고優秀한榮
養効果와相副하야
넘처는것가튼近代
美를發揮합니다

아버지의面刀後에
어머니의淡化粧에
오빠의男性美發揮에
언니의日常化粧에
나의通學整容에

レートフード
레ー도후ー도

東京 平尾贊平商店



담배의 傳來 (二)

湖岩

…되는 光海의 時代이니 以上 … 되어 퍼저간다. 담배草子가 歐羅巴에 드러오기는 十六世紀中葉이오 다시 海上交通에 依하야 明과日本에 傳來하기는 同世紀末이라한다. 朝鮮에 드러온年代는 未詳하나 明과日本에 적어도 十七世紀初인 光海年間에 當時日本으로부터 傳來한듯하니 때는 距今三百數十年前이다. 傳來年代에 對해서 諸說이區區하나 要컨대 光海年間에 버서나지 안는다.

李圭景은 그 著 五洲衍文의 烟草辨證一節에 적어갈우되 「其入我東則光海戊午年間, 始入著」이라고 하다. 我東朝鮮에 처음 드러온 年限이 光海十年戊午(西曆一六一八)임을 알것이다. 戊午始入說은 李圭景만이 아니라 그以前에도 이를 主張한 先輩가 잇스니 擇來隨錄의 著者도 그 一人이다. 그說에 依하면 「南草出自南洋, 始於日本, 光海戊午間, 初來我國, 謂之新茶云云」 南草, 新茶는 모다 담배의 別名으로 그것이 南洋에서 생겨나 日本에서 퍼저 光海戊午間에 처음 朝鮮에 왓다고 함이다.

그러면 이說이 과연 正確한것인가. 이를 한번 考査하야 보자.

紀年通攷에는 「光海戊午 南靈草 始盛行……」이라고 하다. 南靈草 곳 담배가 光海戊午에 비로소 盛行하엿다면 戊午以前에 드러왓다고 본는것이 妥當하다. 谿谷漫筆에는 「南靈草 吸烟之法 本出日本 日本人謂之淡泊塊 言其草出自南洋諸國云 我國自二十年前始有之」라고 하다. 漫筆의 序를 仁祖十三年乙亥에 썻는즉 그所謂 「自二十年前始著」를 溯考하면 곳 光海戊午以前에 올라가게된다. 이로보면 紀年通攷나 谿谷漫筆에 비록 明言은 하지안헛스나 모다 담배의 傳來를 戊午以前에 둔것갓다. 五洲衍文의 烟草辨證에 이두글을 引用하면서도 戊午始入說을 把持하엿슴은 무슨까닭인가. 戊午始入說은 그 誤謬가 그대로 踏用되어 너무나 濫觴하므로 그대로 採用하기 어렵다.

지금다시 仁祖實錄(十六年八月甲午)을 두저보면 烟草에 關한 最初史筆로 이런말이 記錄되어 잇스니 「南靈草 日本國所産之草也…此草自丙辰丁巳年間 越海而來 人有服之者 而不至於盛行, 辛酉壬戌以來 無人不服云云」 丙辰丁巳는 戊午以前으로 이는곳 담배가 戊午以前에 傳來한 明證이 되다. 이實錄의 幾行文字가 烟草傳來와 年代距離가 각가운 仁祖朝에 되엿슬뿐더러 그것을 目睹한 史臣의 記事임으로 比較的 信憑할만한 正確性을 가젓다 하겟다.

담배의 傳來가 戊午以前에 잇섯슴은 무어보다도 담배에 關한 朝鮮最古文獻인 芝峰類說에 依하야 證明이된다. 同書의 序를 光海六年 甲寅(西曆一六一四)에 編輯된것이니 甲寅은 실로 光海戊午보다 四年이 압섯다. 芝峰은 宣祖光海年間의 博學인 李睟光의 別號로 그는 그 名著인 芝峰類說(卷之十九)에 담배를 적어우되 「淡婆古 草名 亦號南靈草 近歲始出倭國」이라하고。 또다시 그아래가다가 「今人多種之云云」의 語句가 잇다。「淡婆古」는 谿谷漫筆의 「淡泊塊」와 同音異字이니 이것이 南靈草와 한가지 모다 담배의 別稱이어니와 「近歲始出倭國」 또는 「今人多種之」 等의 語句가 잇는것으로 推察하면 同類說의 編纂된 光海六年甲寅에는 담배의 栽培가 盛行되엿슬이며 따라 담배의 傳來가 甲寅以前에 잇섯슴을 짐작할것이다.

一言으로하면 담배의 傳來가 戊午以前 거기서도 더올라가 甲寅以前에 잇섯다고 나는본다.

그러면 甲寅以前의 어느해가 되겟는가하면 그는마치 알수 업스나 光海元年己酉(西曆一六〇九)에 壬辰亂後 다시日本으로 더부러 釜山港에서 互市를 열엇슨즉 이平和的交易속에서 담배의傳來가 잇섯슬 것이다。 要컨대 담배의傳來는 光海元年己酉以後로 同六年甲寅以前에 버서나지안흘것이다.

人間學의 對象과 그 本質的 制限 (三)

金基錫

우리들은 아페서 人間의生活이란것이 存在에對한 人間의交涉에잇서서 構成된다는것을 말햇다。사람들이말하는 歷史란것은 이存在에對한 人間의交涉으로서의 한개現實的聯關의 縱斷面, 사람들이말하는 社會란것은 그것의 橫斷面가튼것이 안일가。

人間과環境과의 부단한相互限定。人間이업는대로 自然만이잇슬수는잇다。한개빗나는 秩序를 일허버린 存在의世界란것이 잇슬수는잇다。이人間을일흔 存在의世界에잇서서도 그속에依然히 流動이잇고 轉變이잇고 그리하야 依然히 한개久遠한生成이를 이게된다고 보여진다。그러나이미 그것과 마조서는 人間이업스매, 이「어두운」存在의世界는그것이 人間의環境가튼意味를 가지지못한다。말하자면 主體업는 客體의世界따러서 그자신 客體의意味를喪失한 단순한世界로 남어잇게된다。그것은 아직 存在의世界로서의 權利를가진다。그러나 그것은 現實的世界로서의 歷史的社會的實在의 世界로서의 資格을 가지지못한다。

歷史的 社會的實在의世界。이것만이 行爲의世界 體驗의世界를 創造한다。이것만이 實在의學, 實在의學으로서의 哲學에對한 眞實한 地盤을 構成한다。진실한 意味의 現實的世界는 人間에게 주어지는世界가 되어야한다。人間을 그속에가지고 人間의 環境을 그속에가지는 世界가되어야한다。現實世界에對한 根源的 認識, 이것이 哲學의 眞實한 久遠한課題가안일가。

哲學은 그자신의 地盤으로서의 人間 또는 現實에對한 基本理解에서 哲學은 다른모든學問에 對하야 자기를地盤으로, 哲學자신의 地盤인 人間및現實에對하야 그자신을學問으로主張한다。

哲學은 어떠케하야서 이人間을主體로하는 한개巨大한 現實世界를 實際的으로 파악할것인가。人間對象, 哲學은 單純한思惟에그치는것은안이다。그것은 思惟이기전에 먼저 한개運動이안이면안된다。그러나 人間이가지는 또보이는運動은 어데까지던지 어떤主體의表現가튼意味를 가지지안허서는안된다。어데까지던지 어떤主體의表現으로서의 行動또는實踐의意味를가지지안허서는 안된다。

思惟와實踐의聯關。이것이 人間生活의 진실한構造가안일가。그런데 思惟와實踐은 다시어떤 具體的地盤을가저야한다。이具體的地盤이란것이 압서말한『體驗의潮流』가튼것이안일가。行爲의世界 體驗의世界야말로 歷史的社會的實在로서의 人間의根本現實이안이면안된다。

哲學은 그것이 이人間또는現實의 自己反省이면서 겸하야 그자신 한개『生』이요 運動이다。哲學은 단순한思惟에 그치지는 안는다。哲學은 거츤實踐에 나서지는안는다。哲學은 이思惟및實踐의뒤에서 그것을 길러나아가는 理解、體驗가튼意味를 가지지안허서는안된다。

人間은 思惟에잇서서 存在를 어느程度까지 把握한다。人間은 實踐에잇서서 事實을 어느程度까지 經驗한다。그러나 思惟를단순한觀想으로부터、實踐을 그릇된運動으로부터 救援하는것은 오로지 理解요 體驗이안이면 안된다。理解와體驗。이것은「生」의 根本現實이요 나아가哲學의 眞實한原野를 마련한다。여기서 우리들은 人間의現實에뿌리박은 哲學의 久遠한 前途를바라본다。哲學은 超越的인 實在를 想定하는 그릇된傳統에서 자기를 解放하지안허서는 안된다。哲學은 意識또는 認識만을論하는 그자신의 구차스러운限界에서 離脫되지안허서는 안된다。이리하야「生」의 原野、實在의原野에서 現實的 世界에대한解明을 課題로하면서 기운차게달리라。

形而上學에서 버서난 現實의學。認識論에서 풀어저나온理解의學。體驗의學。여기에서 우리들은 明日의哲學의 우렁찬誕生을 외오는것이 아닐가。그리고希臘的思惟에서 길리며 中世의오랜睡眠을지나 獨逸의理性主義에 이른人間의 思惟가 오늘에 미처 한개새로운 意圖와 反省아래서 그자신의 緣準한 體系를 세우는것을 멀리늘어려 보게되는것이안일가。

隨筆　肥大漢의 歎息 ❶

徐光霽

가난뱅이가 富者가 되고십고 富者가 한달에 幾十圓안되는月給쟁이의 生活을부러워하는때도 잇다

그것보다도 말는사람이 肥大해지고십고 肥大한 사람이 좀 말러보고 십흔 그간절한 心情과慾望은 兩者의 어느部類에든지 屬하지안는 사람으로서는到底히 알수업슬것이다

東洋人의 肉體로서 二十四貫餘斤으로 換算하면 百五十斤이나되고 거기다 身長이 五尺九寸!!이말을 남이드를때 부러워할사람도 만켓지만 남이 아지못하는 肥大漢의 서름은 살찐사람이 안이고서는 또한 아지못한다

墓地가치 축우드러진배에 長鼓筒가티 내민올동이가 보기에 우스면 우스우나 그것을 조흔말로 둥둥하게 배가나오고 투실하게 웅덩이가 나왓다면 그리우슬사람은 업슬것이다

肥大漢은 太陽을받는 面積도 커서 夏節에는 더위를 더타고 겨울에는 그대신 추위를 덜타는脂肪質의 恩德을 所有하고잇다。

萬一 肥大漢이 더위를 타는 不幸과 아울러 추위까지 타는 不幸을 所有하엿다하면 그야말로 엇잘들리는 말는사람들이 肥大한몸에다 冬內衣를 두셋式입고 두꺼운 駱駝外套를입고 몸人개(海狗)처럼 거려다니는 꼴을보고 現實以上의 가즌險口와 嘲弄을 할것이나 造物主는 一長一短式으로 모든것을 만드러냇슴으로 多幸히 肥大漢에게주위의 免稅와 아울러 多少의閑居社會人의 嘲弄꺼리를 免除된셈이다。

朝鮮을勿論하고 어느民族에게나 肥大漢에게對한 嘲弄語가잇다 나는 日常 善良性을 그리所有치못한 말는사람들에게서 이런말을 듯는다 卽嘲弄의 이다 조흔 말로부터 쓴다면 동동이 ─ 그러나 이동동이란말은 肥大漢에게는 그리愉快히 듯는말은 아니다 ─ 洋豚、河馬、TC인데 普通은 그저 도야지라고들 불른다 先天的으로 善良性을 完全豊富히 所有한 現實的善人인 肥大漢들이 듯지도 보지도 못하는 가튼 怪惡한 말은 모다말는사람의 입에서 造語가 되여나오는것이다

그러나 完全豊富한 善良性을 所有한 肥大漢들은 그들의 嘲弄과 아울러 一種의嫉妬 猜忌에서 나오는 그말을 조곰도 怒염하시 그저 우슴으로 드러버린다

萬一 肥大漢이 險口製造業을 業任하엿다면 滿天下의 말는것이(이것은 肥大漢이 말는사람을 가장怒하엿슬때 불르는 말이니 讀者諸君은 諒恕하라) 입에서 가는 목소리로─여기다 또話題를天는다면 肥大漢은 女性的인 弊習을 만히 갓고잇슴으로써이다 상겟우스며 말너깽이라는 그말에 愛嬌가 잇지안흔가를 차저볼必要가잇다) 諸氏는(肥大漢은 驕慢性이업는反對로 相對者에게 언제나 謙遜的으로) 自殺의道를 數하엿슬것이다

그리고 萬一 肥大漢과 말는사람의 어느部類에 屬하겟는가를 肉體的中間層에잇는 살도안찌고 말르지도안흔 사람에게投票를 시킨다면 全部가肥大漢側에 投票를할것이다 그것은 現實의 犯罪學的考察아래에 全世界刑務所 收容人員의 거의全部가 惡性말는사람들의 世界이며 또한多少의 善良性을 가즌 말는사람의 自身까지 살찌고십흔 그懇切 悲切한 心情을 우리는 잘알고잇는까닭이다

조선어 표준말모음 (13)

첫재, 가튼말(同義語)

(一) 소리가 가깝고 뜻이 꼭 가튼 말

빼기다(動)剝 / 빼긔다
바디(名)筬 / 바듸
버성기다(形)疎闊 / 버성긔다
부둥키다(動)緊抱 / 부둥킈다
부리(名)機械用棒 / 부릐
부피(名)容積 / 부픠
살피다(動)察 / 살픠다
설피다(形)疎 / 설픠다
성기다(形)疎 / 성긔다
숫기좁다(形)不寬 / 숫긔좁다
스미다(動)滲 / 스믜다
시끄럽다(形)喧擾 / 싀끄럽다
시누이(名)媤妹 / 싀누이
시르죽다(形)氣衰 / 싀르죽다
시새우다(動)相妬 / 싀새우다
시시하다(形)不重要 / 싀싀하다
시장하다(形)空腹 / 싀장하다
시집가다(動)嫁 / 싀집가다
시회(名)詩會 / 싀회
시아비(名)媤父 / 싀아비
시어미(名)媤母 / 싀어미
찡기다(動)顰蹙 / 찡긔다
찟다(動)裂 / 찟다
자디잘다(形)極細 / 자듸잘다
저기(名)彼處 / 저긔
저이들(名)彼等 / 저의들
조기(名)石首魚 / 조긔
진딧물(名)柔蟲 / 진듸물
티(名)塵 / 틔
티눈(名)雞眼瘡 / 틔눈
키(名)身長 / 킈
피다(動)發 / 픠다
피어나다(動)發興 / 픠여나다
허비적거리다(動)搔發 / 허븨적거리다
아기자기(副)妍妙貌 / 아긔자긔
앙끼(名)快心 / 앙끠
어기다(動)違 / 어긔다
어기적거리다(動)蹇步 / 어긔적거리다
어기여차(感)合力時發聲 / 어긔여차
엉기다(動)凝 / 엉긔다
엉키다(動)集 / 엉킈다
여기(名)此處 / 여긔
영피우다(動)得意 / 영픠우다
오디(名)桑椹 / 오듸
옹기옹기(副)集合貌 / 옹긔옹긔
이기다(動)勝 / 이긔다
이미(副)旣 / 임의

(ㄴ) 소리의 增減에 關한말

(1) 닿소리【子音】의 增減

●ㄱ의 增減 【ㄱ이 더함을 취함】

꾸르륵(副)腹鳴音 / 꾸르르
가웃(名)半 / 가옷
아웃 / 아옷
남개(名)實 / 나매
마굿간(名)廐 / 마구간

【ㄱ이 줄음을 취함】

가르랑가르랑(副)喘息貌 / 갈그랑갈그랑
글겡이(名)刷毛鐵梳 / 그렝이 / 글게
그다지(副)如許 / 그닥지
그대지 / 그대도록
나무(名)木 / 남구 / 낡
땀받이(名)汗衫 / 땀밧기
동이다(動)束 / 동기다
모과(名)木瓜 / 목과
저다지(副)如彼 / 저닥지
저대지 / 저대도록
푸서기(名)不堅物 / 푹서기
언뜻하면(副)見輒 / 건뜻하면 / 얼든하면
이다지(副)如是 / 이닥지
이대지 / 이대도록

●ㄲ의 增減 【ㄲ의 줄음을 취함】

이아치다(動)妨 / 끼아치다 / 이치다

●ㄴ의 增減 【ㄴ이 더함을 취함】

건넌방(名)正寢越房 / 거넌방
너출(名)垂蔓 / 너출
눈깔(名)眼 / 눈갈
던지다(動)投 / 더지다
둔덕(名)阜 / 두덕
언청이(名)唇缺人 / 어청이 / 언청샌님

【ㄴ이 줄음을 취함】

가지런하다(形)齊 / 간지런하다
가즈런하다 / 간즈런하다
-건대(語尾)하건대 / -건댄
고치다(動)改 / 곤치다
녀석(名)男子卑稱 / 년석
노가주(名)杜松 / 노간주 / 노가지
다니다(動)行 / 단니다 / 댕기다
무뜩(副)意外 / 문뜩
무척(副)多大 / 문척
소란반자(名)天井 / 우물반자

現代와 花柳病 (一)

京城帝大泌尿器科 金應允

花柳病은 性病이라고도 稱하나니 1、黴毒 2、淋疾 3、軟性下疳 4、鼠蹊淋巴肉芽腫의 四者를 云謂합니다 今玆에 以上四者의 臨床的症狀을 槪說하고 兼하야 豫防問題를 略述하랴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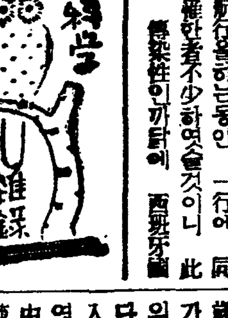
1、黴毒

黴毒의起源 遠西에서와東西에서 石器時代의 骨에서 때나온 人類化骨의 病理學的所見을 基礎로한 黴毒의 太古存在說과 亞米利加傳來說의두가지가잇스나 歷史的考察을하여보면 15世紀末까지는 舊大陸의어느 國土에나 黴毒의 存在를 確證할만한 事實을 史上에서 차저볼수가업고 저 「나폴리」에서 有名한 黴毒의大流行이 「콜럼버스」가 亞米利加로부터 歸航한後이며 또東亞에잇서서도 亞細亞沿岸의 處處에서 證明한바 黴毒의 發生은 「바스코·다·가마」를 先頭로西歐人이 亞弗利加의 南端喜望峰을迂回하야 漸次東洋에 來航한 年月日과 一致하나니

「콜럼버스」가 「피렌체」博物家인 「토스카넬리」에서 西航하면 直路 印度에 到達할수잇다는것을 信念하고 一四九二年 八月三日西班牙女王 「이사벨라」의 庇護下에 「팔로스」港을떠나 茫茫한 海上에서 一隊의 羅針盤과 「토스카넬리」의海圖를 唯一의 案內로 險惡한波濤와싸우며大洋에漂泊한지 七旬 同年 十月 十九日에 新陸地를 發見하엿스니 土人이 「구아나하니」라 부르는 곳이엿스며 十二月 六日 「하이티」島에 到着하야 西班牙島라 命名하고 留한지 四旬만에 翌年 一四九三年 一月十六日 歸航하야 三月十四日 「팔로스」에 安着하고、이어서 「쇼이리야」에 入港하야 歡迎을 바드며 女王에게 謁見하고 어든바 黃金、珠玉、珍禽及 黑奴를 獻上하엿스니 이때 一行中에 「스피로헤-타·팔리다」라는 一種의 原生動物을 携帶한 者가 잇섯슬줄이야 後에 누가 알엇겟슴니까。이때 西班牙의 都市 쇼이리아「바르셀로나」와「갈리샤」地方에 一種의 新病이 流行하엿스니 元來 本病은「인디아」土人의「구아이나라-스」「부-바스」라부르는病으로「콜럼버스」가 此地를發見한時 傳染性이기때문에 一行에 感染되야「콜럼버스」가 歸航한後 바르셀로나市에 流行하엿스며 其後「콜럼버스」가 第二回 第三回의航行을하는동안 一行에 同病에 罹患者不少하엿슬것이니 此病은 傳染性인까닭에 西班牙國人에傳하며 伊太利에傳播되야乃終에는 他國에 蔓延되엿스니 西班牙에서는 처음 下流社會에流行하엿스나 漸次中流及上流를犯하고 1496年에는 宮中에까지 此病患者를 볼수잇섯다합니다

그리하야 黴毒은 처음 「갈리샤」地方에 생겻다하야 갈리샤病、西班牙病、印度病、印度疹等이라 불러워 當時에는 交通이 不便하얏슴으로 黴毒은 大陸의 西南端에 局限하얏스나 佛王「찰스八世」의 伊太利의 遠征으로 因하야 全歐에 大流行을 起하엿스니 이遠征軍으로부터 佛蘭西를 經由하야 獨逸에 傳播되고 니어서 露西亞地方과 亞弗利加에 蔓延되엿스니「찰스」八世의 遠征은 다만 戰略上全然失敗에 終하엿슬뿐 아니라 疫病史上에 紀元를 劃하야 一年前「콜럼버스」一行이 가저온「스피헤-타」의 一群을 歐洲全土에 席捲하엿스며、蔓延하여는 世界人類를 征服케하엿슴니다。

이때 「콜럼버스」의 新大陸發見은 다시 歐羅巴에서 印度를 가는길은 陸路를 經由하지 아니하고 亞弗利加를 迂回하는新航路의 探險을 하게된 動機가 되야 葡萄牙의 船將 「바스코·다·가마」는 一四九七年七月八日 리스보港을 出航하야 十一月 二十日 喜望峰을 지나 翌年五月 十七日印度「캘리컷」에 到着하엿스나 其時 土人의 血中에「스피헤-타」를寄託한 人士가 적지아니하얏슬것이며 其後年年歲歲東洋에 往來한 歐洲의 船舶數가 만엇슴과 同時에 黴毒輸入의 機會도 亦是頻繁하엿슬것입니다 그리하야 黴毒은 印度에 輸入되고 이에 支那廣東에 侵入하엿스나 揚子江沿岸을 經由하야 中國全土에 蔓延하엿스며 他方琉球를지나 日本內地에 輸入되엿스며 朝鮮에도 唐瘡이라는새로운病이 輸入되엿 中國을 經由하엿슬것은 여러가지로 想像할수잇슬것입니다



벌서速力制限

八十年前에잇서서

七十八年前 이미都會에잇서 速力을規定한 規則이잇섯는데 요지음偶然히도 그것이 發見되얏다 交通機關이아주 進步되지안흔그當時에잇서서도 안되·스피-드의規則이되야 잇스니까 스피드化한 今日의都會에서 速力規定은 當然한일이다

그런데 發見된規則中의 一項目으로 「거리에서 스피드를내어 말을달리어서는 되지안는다」고 한것이잇다 當時이러한規則에抵觸되는者는裁判에부치어 判決을바덧는바 八百五十年지금부터 八年前에猛烈한 形勢를뵈혓다고 十弗의 罰金을 바친것이文獻에들어나고잇다。

아프로 六十年만지나면 그때는 飛行機에도 速力制限이必要하도록 空中의 交通綱이 緊密하게되야 自動車의 交通整理나 速力制限은 넷이야기로 될는지모른다

▲遂安金炳龍先生께 先生께서 本社交室을 通하여小說數卷을 빌려주신다기에 기뻐서 請求書를하엿든바 其後本社交室에 回覽順으로 付送하여주신다고 發表하엿기에 苦待하기를벌서 數朔이經過하도록 何等消息이無하오니 如何한일이지요 萬一送料가 必要하다면 送料를보내드리겟사오니 左記住所로 通知하여주시요

海州郡梨木市 尹泰龍

▲新舊書籍이 豊富한古本書店으로 收入이相當한店舖를 販價로讓渡코저하오니 有意하신분은 來問하시요。

京城惠化町 一二五(高商前) ミモサ書店

▲海州欣知生에게 嚴仁基氏는 現在滿洲奉吉線山城鎭에잇습니다 鑛山業을한다고합니다 有望한鑛山五六個所를 出願햇다고 합니다 通信은山城鎭山城時計店으로하면됩니다 華天人

▲八月二十七日附社交室로諸氏에게 一言하얏든 文學同志募集作成에對하야 期於히發行코저하얏스나 申込者의 少數로不得已發行停止키로 되엿사오니 申込한 諸氏와 讀者여러분은 諒解하시기를 바랍니다

第十四回 通俗醫學講演會

演題及演士
大腸窒扶斯에對하야 M·D 魚丕敦
비타민에對하야 醫學博士 沈浩燮
性홀몬에對하야 醫學博士 李榮俊

時日 十一月二十日午後七時
處所 中央基督敎青年會館
入場料 場內整理로因하야五錢徵收
主催 世專YMCA文藝部
後援 朝鮮日報社學藝部

リグレー 리구레

純粹眞正의 추잉껌

口中을淸潔하게食事飮酒喫煙後의不快한口氣를除去합니다

齒牙를히고强健하게醫渴하고體力을維持하야汽車汽船의醉를防止합니다

每食後저작하십시오氣分이非常히좃슴니다。

陽氣업서 恨歎하시는분이여!
貴下를爲하야 補精腎氣强壯에
神奇神秘한 天惠的靈効를가진
果然! 무엇이냐?

樺太廳官營▲海狗腎▲을販賣함

海狗腎은 補精腎氣强壯에神秘的靈効가잇다함은이미 史上이 共認하는바어니와 元來此藥品이極히稀貴하며 또한 眞僞를 判斷하기 困難함으로 一般世間에는 各種의不正한類似品을 眞品이라고 詐稱販賣하는者有하니다 故로弊社는 오래동안此에對한 研究와調査를 徹底이한結果

眞品海狗腎은膃肭臍임을證합

東醫寶鑑湯液篇卷一及本草綱目卷五十一下獸部에 膃肭臍는 卽海狗腎이라하야습니다 大抵이 眞品海狗膃肭獸는 精氣가 普通動物보다 數百倍나 强壯하야 牡獸一頭가 牝獸百餘頭를 制率交尾하는者라 그體質이 甚히 精强한者이外 主로北洋寒帶地方인 日本領土인 樺太島 露國領土인 코만도-리 島 米國領土인 푸리비로-프島等地에서 繁殖하고잇습니다

國際的으로繁殖을保護합

此動物이 人類保健上不可缺할 高貴의動物이라 從來는各國이 競爭的으로 捕獲하야왓으나 明治四十四年十二月米國華盛頓에서日、英、米、露의四個國이 膃肭獸保護條約의 締結이成立되자 그當時로 向十五年間은 一切捕獲을 禁止하얏습니다

至今은樺太廳에서官營으로로若干捕獲함

捕獲禁止期間이 經過한今日이라도 一般民間은 絶對不許하고 直接樺太廳에서 官營으로 一定한時期에 捕獲하야 同廳水産物檢査所에서 嚴正한檢査를한後 皮와肝과 肉을藥用으로 販賣하든바 特히腎은大部分中國方面으로 輸出하고잇습니다

弊社에서拂下指定販賣함

此海狗腎은 이미世界的高貴品으로 認定되자 貴下樺太廳에서官營으로 捕獲하는 그것도 決코 無制限이 아니요國際的繁殖保護條約에基하야 其數量과期間이 制限되고잇음으로 現今生産數는 極히少量에 不過합니다 故로各國商人들은 此의拂下指定을 受하랴고 相當한競爭을하야왓음은 不言可知할바이어요 從來는 專혀外地商人의게 取扱되고잇음을 今般弊社에서 大膽히巨大한納金을敢行하고 이에拂下指定을 特約하야얏습니다 右와如히 弊社에서 販賣하는海狗腎은 一般類似品과는 特異한 樺太廳官營採取品으로서 樺太廳이 嚴封札이嚴封된후에 同廳水産物檢査所에서 檢査證明한 眞品이오니 平素에求服을 願하시는 諸位는 勿失此期하시고 一次試服하시면 此果然眞品海狗腎이임을 自認하실것이외다

此海狗腎은何必補精腎氣壯陽에만아니라 肺病、腦病、胃腸病、消化不良、不眠症、神經衰弱等에 特効가잇습니다

(絶對副作用업음)

價格
特大 一具 二十五圓也
上大 一具 二十二圓也
並大 一具 十八圓也

注文 地方에는代金引換에도應함

朝鮮釜山府草梁町
發賣元 合資會社 大洋貿易社
電話 二一一九番
振替釜山七七九三番

連載野談 (一六五) (不許轉載上演)

布衾記

申鼎言 作
金熊超 畵

마저숙기소원(二五)

이철이와 덕용이가 그 찰두를 차즈려고 하방업는 거리로 나섯다。

그것이야 말로 남대문 입납격이엿다。

만호장안, 억만가구라 일컷는 넓고 넓은 장안에 그 찰두가 어데잇는것을 어이능히 알리。

이철이와 덕용이는 거리로나선뒤 가장 눈여겨 보는곳은번저술집, 다음에는 큰대문이 달리고 별배와 구종이 보이는집 대문간이엿다。

이리 끼웃!。

저리 끼웃!。

이와가티 이철이와 덕용이는 눈에 띄우는 술집과 대가집 문간은 하나도 빼노치 안코 이리끼웃 저리끼웃 유심히 살피여 보앗다。

그러나 그 모습과 행동이그럴듯, 그럴듯한 사람은 만호나 흡거야 빨리쫓차가 보면 분명

한 사람이엿다。

그런데 이철이와 덕용이는 이러듯 끼웃거리고 돌아 다니는동 선뿔귀리나 훔치려 다니는 좀 도적으로써 수상스럽게 보는 사람의 눈치도 한들이 아닌것을 눈치 채엿다。

「여보게 가세。히금자 그릇에 때려진 머리니 찾기보담 어려워 그려。그 몽술놈이 분명 이 장안에 잇스련 만은 눈에 띄워야 말이지。그놈을 찾다가 요러케 신수가 사나운때 까딱하다가는 공연히포도청 청사(廳使)의 밥으로나때어가거 쉽겟네。그 녀석들이 우리를 수상히 보는 눈쿨을 보게。아닌게 아니라 우리의 꼬락서니가 요모양이니 수상하게도 보지 안켓나!。」

하고 덕용이가 이철을 향하야돌아가기를 말하얏다。

「아니게 아니라 그도 그래。」

하고 이철은 덕용이말을 들은뒤 그찰두를 찾기 위하야 장안을 거지반 돌아다니다시피하얏스나 도적의 자취는 업고 의복주제가 남에 사나운 몸으로써이리끼웃, 저리끼웃하고 다니는것을 이러사람들이 수상히 보는 것도 고이치 안흔일로 생각하엿다。

그리게 이철이와 덕용은 그 찰두를 찾지 못 생각을하니 하고 광주구이청으로 도라왓다。

그러니 리선전관은 아직도돌아오지 아니하얏다。

「자!。나리마님께서 어디를가섯슬가。서울을 올라오신뒤 출립이라고는 그 리판서인지、윤정승인지 하는집 그 몃군데 바게 가보신데가 안게신데。그 세집에는 결단코가 섯슬리가만무하고。어데를 가섯슬가?」

하며 이철과 덕용은 리선전관이 그러케 출입할곳이 별로업는바 나간지가 오래 되엿스나 도라오지 아니하는것을 퍽이나 이상스럽게 생각하얏다。

대저 리선전관은 자긔와 가리 그러케 사람을 알아보는총명과 세상물정을 모르는 자격으로는 조정에서 벼슬을하기커녕 이세상에 살어잇서도 쓸데가 업는 인생인것을 스스로 한탄하고 모진 마음으로써 과연 한강 언덕까지 당도하얏다。

때는 륙월염천!。

한강의 푸른 물결은 울툭,불퉁 문의를 일우워 쉬임업시 호르고 강언덕아래에 한갓 욱어진 푸른 갈대속에서는 고이부는 강바람을 바더 와스럭거리는 소리가 요란하얏다。

은자락이를 펴노흔듯한 동작이 모래바다에서는 뜨거운 긔운이 창천에 소사 오르는듯。그 황황한 긔운이 강언덕까지 등기고、그밧게 오고가는 갈매기의소리、멀리 들리는 사공의 배젓는소리、잇다금、잇다금、물바그로 뛰어 올넛다가 다시 물에 떠러지는 물고기의 노는소리、강언덕바 마을로부터 울려나오는 개소리、닭소리、또는 강가양톤 물속에서 빨래를 치는 아이들의소리。그 여러가지의 풍경이 지붕로 륙지에서는 볼수업는 긔이한 풍경이엿다。

이때 리선전관은 강언덕에 잠시안저서 그 강상의 풍경과 그 강조의 정상을 유심히 바라보다가

「오냥 내갈길은 한시밧비 어서 가야지。이세상을 등지려하는 신세로써、이세상에잇는 강산풍경은 무엇이며 강조정상은 무엇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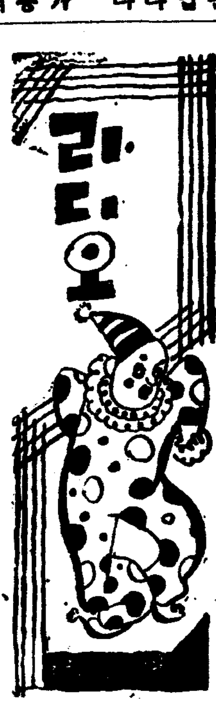
하고 벌덕 일어나 길이 넘는 갈대밭을 해치며 한거름 두거름 강물가까히 나아갓다。

이때 구뷔 구뷔 흐르는한강의 푸른 물결은 과연 리선전관을 생키려고 넘늘거리는듯。여긔서 저긔서 길길이 높히뛰는 물고기들은 리선전관을 장차 집어생길 밥으로 보고 조와라서 뛰는듯하얏다。

이때 리선전관은 이세상의것은 조코 나진것을 막론하고 더보지 아니켓다는듯이 두눈을 딱감고 물에 뛰어들엇다。

풍덩!。

盛況이룬 普專學生 劇의밤



十九日(木曜)

◇午後六時 童謠獨唱 一、퐁당퐁당(秦) 二、동리의원(秦) 三、집신짝(姜) 四、가을밤(姜) 五、병정나팔(秦) 六、큐피님(秦) 七、참대배(姜) 八、초주는락엽(秦) 秦貞姬 姜林鋼 伴奏 秦賢鳳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〇分 講演 天性과人格 佛專敎授 金斗憲

◇同七時三〇分 農村講座(一) 第二高普 金雄珏

◇同八時〇〇分 獨唱 一、寂寞한가을…玄濟明作曲 二、마르타中『꿈과가티』…플로ㅡ作曲 三、마리아마리…카푸아作曲 四、歌劇토스카中「별도빗난다」…푸치니作曲 五、海邊의노래…成田爲三作曲 六、나포리의배人노래…伊太利民謠 李仁範

◇同八時三〇分 唱劇調 一、短歌竹杖芒鞋 二、唱劇調 沈淸歌 李東伯

◇同九時 (東)管絃樂 鼓手 池龍九

第一放送

◇午後六時 (大)兒童講座

◇同七時三〇 (東)講演

◇同八時 (長)茶談會

◇同八時三〇分 (東)落語

◇同九時 (東)管絃樂

二十日(金曜)

◇午後〇時五分 映畫이야기『小公子』 柳寅成

◇同一時一五分 婦人時間 家庭과音樂 洪蘭坡

◇同三時一〇分 (東) 敎師時間 (第一放送에依함)

◇同六時 兒童劇『매미잡이』 京城放送兒童劇硏究會 指揮 南雲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〇分 趣味講演 金貫龍

◇同七時三〇分 農村講座(二) 第二高普 金雄珏

◇同八時 管絃樂 日本放送交響樂團

◇同八時五〇分 歌詞 一、길軍樂 二、黃鶴調 盧鶴桃 徐山玉

◇同九時一〇分 山念佛外 一、산념불 二、興타령 三、긴아리 四、打令 五、방아타령 大岑 金永根 金一李 金順紅 金鶴善

第一放送

◇午後零時五分 常識講座

◇同六時 (東) 이야기

◇同七時三〇分 (東) 生活改善座談會

◇同八時 (東) 管絃樂

◇同九時 (東) 映畫劇

二十一日(土曜)

◇午後零時五分 (東) 輕音樂 一、가을의하이킹…眞野泰光作曲 二、알론조…맛原千加士編曲 三、未完成交響曲…슈ー버ー트作曲 陶野重雄編曲 第一樂章알레그로·모데라ー토 돌보·아코디온·벤드 指揮 眞野泰光

◇同一時一五分 婦人時間"動物의母性愛" 李晶俊

◇同六時 어린이科學"無線電氣이야기" 韓德奉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〇分 週末時事 李元坤

◇同七時三〇分 農村講座(三) 第二高普 金雄珏

◇同八時 時調 一、平時調 二、지름 三、辭說時調 大岑 高永泰 朴鍾基

◇同八時一五分 (大) 피아노獨奏 一、幻想曲 F短調…쇼팡作曲 二、小品세개…모짤트作曲、브조ㅡ니編曲 (一)지ㅡ그 (二)… (三)變奏曲 三、자장가…尾崎尙志作曲 四、前奏曲…드뷔시作曲 五、軍隊行進曲…슈ㅡ베ㅡ트作曲

◇同八時四〇分 流行歌 一、…지는季節……文湖月曲 二、…山串打令……孫牧人曲 三、不如歸……文湖月曲 四、길섶에피는꽃……金海松曲 五、無情月花……文湖月曲 六、안달나요……金海松曲 七、베짜는각씨……文湖月曲 李銀波 伴奏 DK管絃樂團

◇同九時五分 伽倻琴散調와併唱 一、散調 二、併唱 가、短歌 竹杖芒鞋 나、唱劇調 春香歌 申明洙 鼓手 池龍九

第一放送

◇午後〇時五分 (東)輕音樂

◇同六時 (名)童話劇

◇同七時三〇分 (大)合唱

◇同七時五五分 (大)落語

◇同八時一〇分 (大)피아노

◇同八時四〇分 (大)歌謠曲

◇同九時 (大)時事解說

★曆★

十一月二十日(金) 陰丙子十月大(初七日) 丙午·水·牛·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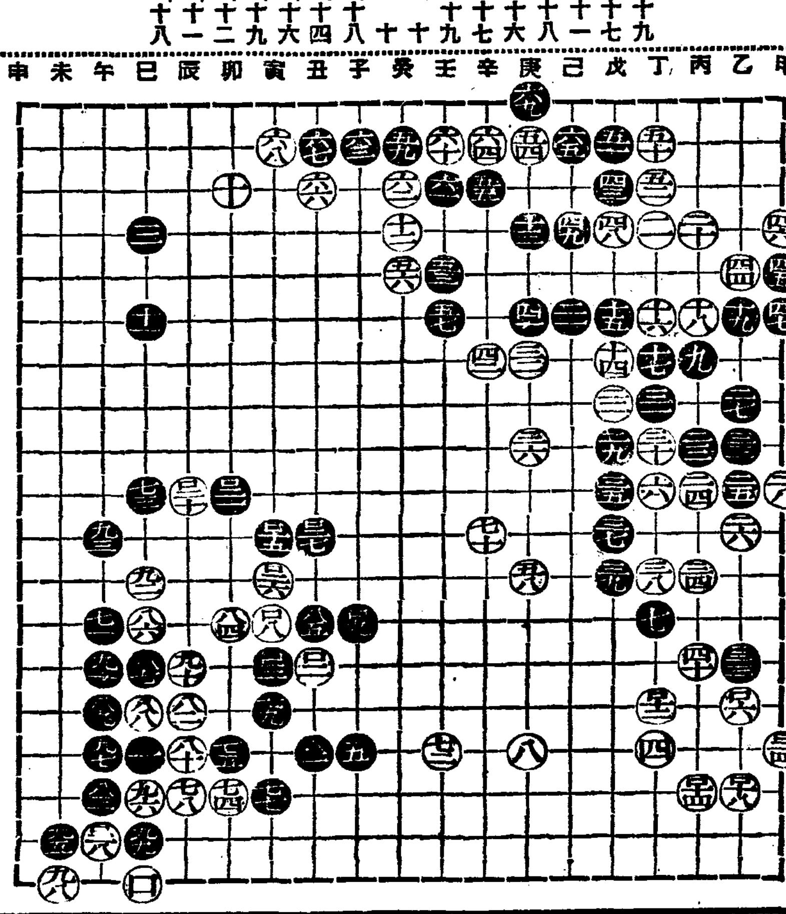
●祭祀에吉함

●小雪二十二日(陰初九日)

●大雪七日(陰廿四日)

本社主催 圍碁對局譜 —8—

白 秦樞文
先 權秉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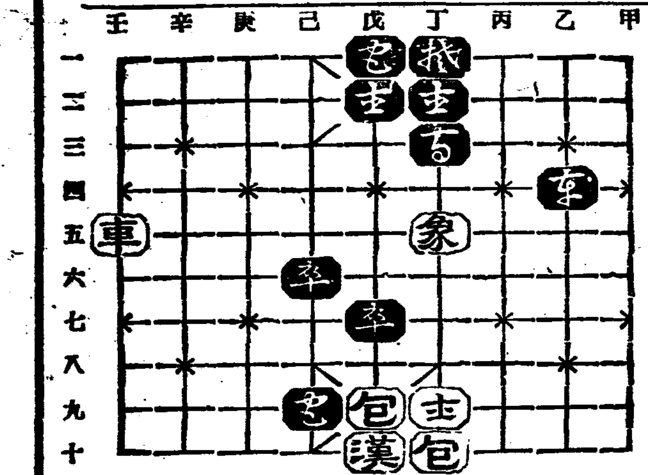
●一三 午의十九
○一四 丙의十七
●一五 寅의十一
○一六 午의十八
●一七 乙의十六
○一八 乙의十七
●一九 午의十九
○二〇 辰의十
●二一 卯의十
○二二 午의十八
●二三 乙의十四
○二四 甲의十六
●二五 午의十九
○二六 寅의十二
●二七 丑의十一
○二八 午의十八

觀戰者談 白은圖生 黑은包圍 午의十八九劫勝不勝에 輪贏判斷할時機가 迫頭함으로 黨露神糊은 蝸化枯枝라 白이 劫一番을 差退하고 丙의十七로 黑二點捉取함이 明見으로 推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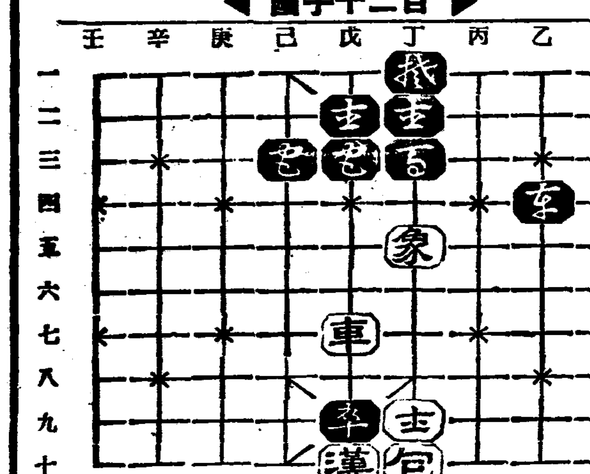
本社主催 將棋名手對局譜(二十)

兵一減 漢先手 李在鳳 對 楚 盧世禎

▲百十手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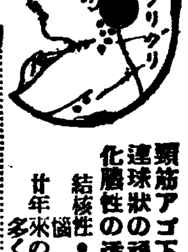
◀百二十手圖▶



壬五車—壬一
己九包—己三
壬四車—壬六
己六包—己七
壬六車—己六
戊二包—戊三
己六車—戊六
己七包—己八
戊六車—戊七打卒
己八包—戊九打包

きれいる

のんでキクりんぱせん結核



評判の高い"內服良劑" ワカ山の「るいれき專門藥」

廿年來の名聲と多くの實驗例を誇る

結核性・梅毒性・惱みの人に

頸筋アゴ下等のグリグリ 連球狀の頑固なグリグリ 化膿性の汚ないグリグリ

效能正確、副作用なくキレイになつてあとも目だたぬ

定價 廿二日分六圓七十錢 五十五日分十五圓 大人用・子供用あり 年齡明記のこと 送料內地十五錢 海外四十二錢

九十頁文獻 新聞名記載申込次第無代進呈 **健康の更生**

本舖 和歌山市三年坂 るいれき專門藥院 電話一〇八三番

登錄商標

고무신은거북선

京城東大門外서울고무工社 電光一一五九

感氣解熱 特效藥 實效散(실효산)

感氣는예전부터 治療에怠慢하야 餘病이생겨오래 감이普通이다 副作用이업는 實效散으로속서 곳처야함을 잇지말나

定價 二十錢 三十錢 五十錢 一圓 三圓 五圓

全國有名藥店에잇다

實效散 本舖 東京市神田區明神下 師岡天然堂 振替東京一三七二

No.2

頭髮洗粉

花王シャンプ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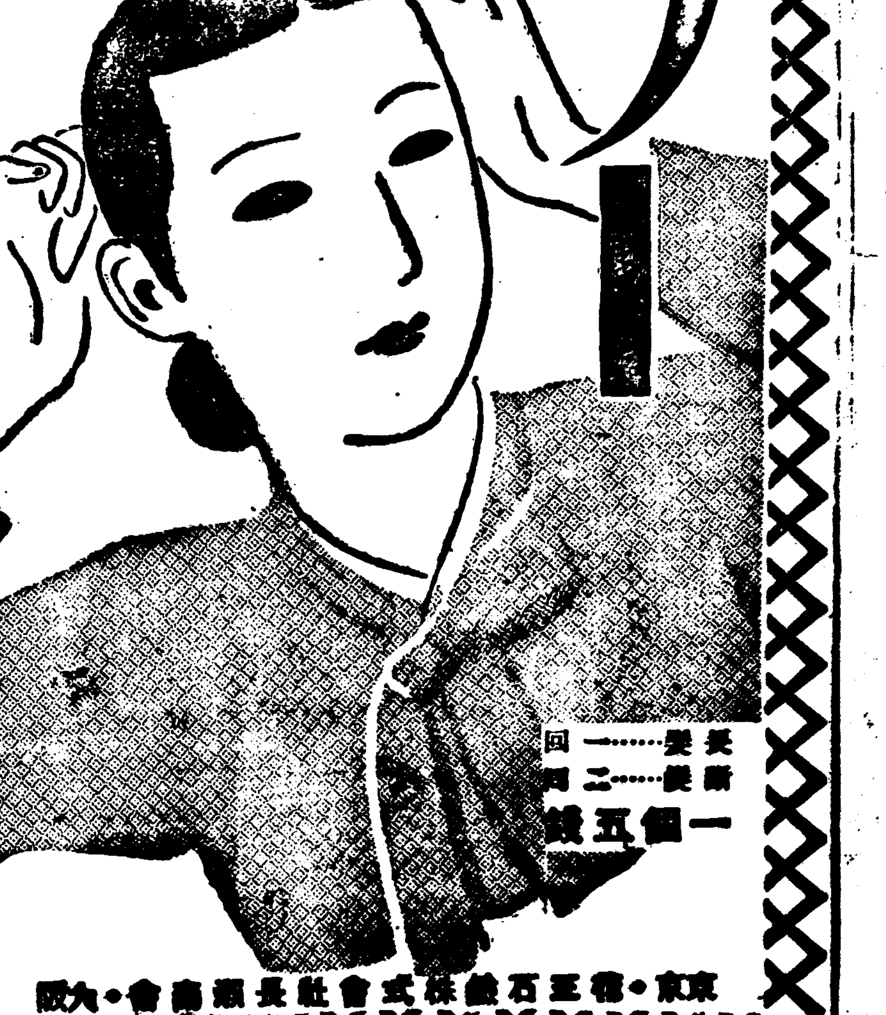
화왕샴푸

魅力의黑髮!

花王샴푸로 겨울에도짬짬이씨습시오

效果顯著한美髮劑가配合되여잇스므로 씨슬때마다毛髮에아름다운 潤澤과柔軟味를給與합니다

때가잘빠지고싯기에도말리기에도 時間이걸려저안코普通衣服입으신그대로씨서서 氣分까지明朗해진다



特製…一回 新裝…二回 一個五錢

東京·花王石鹼株式會社長瀨商會·大阪

어린에기의安全과幸福을保證하는上揭商標에注意하십시오、수리표우유는育兒用으로安心할수잇는唯一한煉乳입니다

煉乳之元祖

ワシミルク 수리표우유

●學校의成績은頭腦가第一이오 머리가무겁고 마음대로工夫가려는 아니될時에는곳

ノーシン 노ー신

올잡수시오◆頭腦가明快해서工夫가저절로됩니다 아모藥店에고잇소

十一月十八日부터 最大映畫週間 每日三回晝夜公演 一回十二時 二回 三回七時始映 大衆料金 階上十五錢 階下十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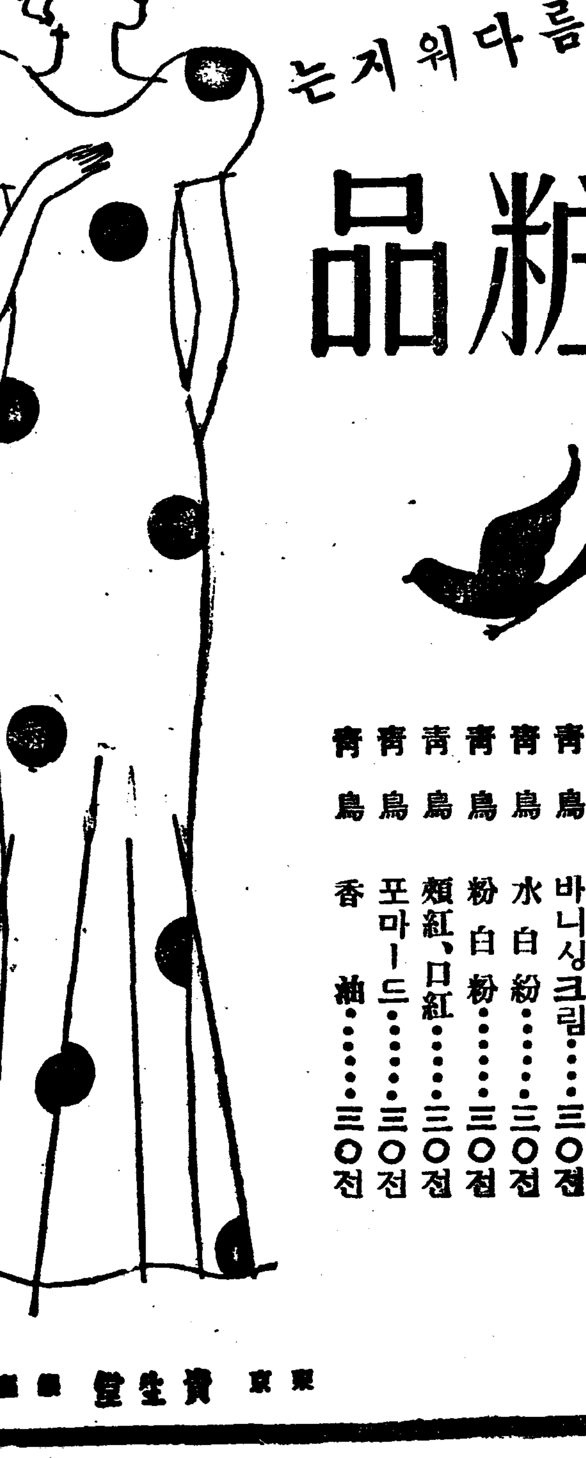
◆右太衛門프로덕슌特作品 原作 子母澤寬氏 監督 吉野英治氏 時代名篇 思雲三とや日記 市川右太衛門 主演 歌川絹枝孃 共演

◆유니버살社特作品 無聲映畫 에도게루氏 監督 文藝劇 復活(一名카추샤) 쿠레·베렛孃 존포ー루스氏 主演

◆와ー너부라더스社特作無聲映畫 戰爭活劇 珍勇凱旋 조ー지제ー셀氏 맛시ー루스미리孃 主演

第一劇場

電話光化門一七五五番



알아볼수업게아름다워지는

青鳥化粧品

어떤化粧品이던지外見만으로서는 알수업습니다。使用해보고야비로서그眞좀를알수잇습니다。青鳥化粧品이야말로곡당신에게滿足을드릴겻입니다。

青鳥香水……五〇전
青鳥바니싱크림……三〇전
青鳥水白粉……三〇전
青鳥粉白粉……三〇전
青鳥頰紅、口紅……三〇전
青鳥포마ー드……三〇전
青鳥香油……三〇전

東京 資生堂 製品

慶南道災害復舊費 容認不過三分一
三百六十萬圓要求에百廿萬圓
旣定方針도變更乎

【釜山】경상남도에서는 재해복구토목공사(災害復舊土木工事)를 금년도부터 오개년계속사업으로서하고자 그공사비로 도로교량(道路橋梁)에 이백만원 하천(河川)개수 일백이십만원 항만(港灣)사십만원등 합계삼백육십만원을총독부에 요구하얏던바 이지음 도로교량에 육십만원 하천에 사십만원 항만에 이십만원 합계일백이십만원밧게 용인되지안흘것이 판명되엿스므로 도당국에서 기정계획을 변경하야 소화십이년도부터 삼개년계속사업으로서 공사를실시하기로준비중이라한다

港灣埋築起工式 十五日盛大擧行

【三千浦】경남 삼천포매립조합(慶南三千浦埋立組合)은 조합원 오십륙명과 구수백삼십륙구의자본금 칠만사천팔백원으로 금번 사월구일에 착공하야 당당한 항[illegible] 일만이천여평을 매축한다는 것은 루보한바어니와 거십일일에 진주죽본조(晋州竹本組)가 그공사에착수하야 진행중에 잇스며 지난십오일오전열시부터 당읍 선귀리(仙龜里)매립지에서 그공식을 다수래빈의 참석하에 조합장구강일(龜岡一)씨의 개식사로시작되여 다수래빈의 축사가잇섯스며 동오후한시경에폐회하엿다

全南의海苔養殖 今年에도大豊作
◇……大槪昨年과가튼好況 —關係業者들의雀躍—

【光州】금번하절에는 지리한장마가 계속하얏섯고 이여서그후 기후가 조치못하야 해태양식에잇서서 펴으나 우려되든바 구월중순부터서의 긔후호전함을따라 해태의 부착성적(附着成績)이지극히 양호하야 작년의 대풍작과 조금도 다름이업슬만치 풍작을 예상한다는데 이와가튼 형편으로되야 간다면 [illegible] 대조(大潮)에 무수업는 성적으로서 풍작을 볼것이며 금번도 신롱해태는십이월조순경에나올것을 예측하고잇는데 전남도내서도 해태명산지라 층하는 완도(莞島)는 해태양식면적이 오백사만평이며 그에종업하는 사람이 이만팔천여명으로 그를 관계하는호수는 일만삼십오호이니 전완도거주자의 대다수가 관계한셈이라한다

에 상십륙만원의생산을하겟다

尹郡守談 지난번 도에서 도라오자즉시 발표하지안는데 대하야 혹 오해할는지모르나 이점은 내자신이 관리이니만치 총독부의 명령임으로 할수업섯다 이점은 특히 양해해주기를바란다

搬出港移轉問題와 各關係當局意嚮
陳情委員報告內容

【三陟】국보—지난십일 출발한 삼척탄광 반출항변경에 반대키위한 진정위원 근등(近藤)씨외 목인은 그동안 도와 총독부를 비롯하야 관계당국을 방문진정하고 지난십일에 도라오자 즉시 십이일에 삼척공회당에서 면민대회를열고 진정결과를 보고하엿다는바 도로부터 전삼척경찰서장이든 판원(坂元)씨도 저서의의도를 전달하기위하야 참석하엿다고한다 이제 각진정원의 분담한방면의 진정에대한 보고를 드르면 다음과갓다

道廳側(林面長) 한출항이 묵호로 결정된것이 아니요 묵호조사중에잇다 삼척에대하여는특히고려하는중이다 삼척항의 오십만원정도로의시설 할것도속히실현하겟스며 읍내의교량 제방등도 급속히실현하여주겟다 목하총독부와 회사방면에 절충중이나 질소공장이 북삼면(北三面)에 확정되이외에는 되도록 삼척에설치하겟다

總督府(金致化氏) 전에 매수햇든 토지는 모다사용하겟다 삼척과소달(所達)사이에도 자동차가 통행할도로를 힘써하여주겟다

炭鑛側(金東穀氏) 변경이안이요 확장이다 삼척에도 공작과 기타시설을할터이니 아모념려할배가 업다 각회사유지에는 시민의호의를 바란다

小野田세멘트側 鄭允敎氏 우리회사는 절대변경치안켓다 오히려더확장하고저하나 총독부의통제책상허가가문제이다 총독에는 귀정심팔만돈 이귀

料亭放逐陳情
土地返還同時
平壤永明寺에서

【平壤】평양불교의 총본영인영명사(永明寺)에서는 부근일대의토지 즉모란봉 공원의 일부를반환하라는 진정을 평남도청에 제출햇는데 모란봉의 절승지의 일부가 영명사의 소유이든것이 국유지로변햇고 다시 반환해달라는 진정을 하게되대까지의경과는 다음과갓다 영명사는 일청전쟁(日淸戰爭)즉갑오년 난리때에 병화로인해 서득월루(得月樓)뒤편에잇든본전이라바린후 할수업시 그당시암자이엇든 칠성암(七星菴)에 이전하고 현하여 현재의영명사를 재건햇다

이때까지에는 영명사를중심으로 부근일대의일만오천평은 이절의소유임은물론이라 부벽루(浮碧樓)와 득월루(得月樓)까지도이절의소유로 되여잇섯다

그런데 그중거로는 대정삼년에 사내(寺內)총독으로부터 영명사의 부속건축물인 부벽루와 득월루의 수리비로 칠백원의보조를 바든사실까지잇섯다

그러나 그후 전조선적으로토지조사를 할때에 국유에편입된것을 신고귀간호에야 알게되여 물론 그당시 불교교도 더욱이 평양지방의 불교도의 무식을탄로하는것이지만은 토지반환의진정을 일곱대지사를 통하여삼십여회나 해지만 불문에 부러고 마럿다

이러한 경과를지나 영명사는 차지생활(借地生活)을하지안흘수업는불우한운명에 봉착하여 지금에는 법률상으로는 어떠케할수업다고하나 영명사부근에는어목다옥(御牧茶屋)이 잇서서 기생의 음란한노래와 술울테우고 고기굽는내음새가 법당에까지드러 사원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할수업슴으로 현재의 귀지에 빼앗신뢰과가려 어목다옥까지 이지를 영명사에 양도하든가 그러치못하거든 어목다옥을 다른장소에 이전해달라는 진정을 또다시 도당국에 제출햇다

물론 영명사의 요구인 토지를 다른위치에 이전하라는것은 설전개벽의 취지에 비최이어 또는 사원의 존엄을 유지하는점으로보아 물론지당하나 세무과국에서는 도저히안될 말이라고 그래도 꺼떠하지 안는 태도여서 아로로의 경과가 자못 주목되고 잇다

凡一町一帶細民村 地料를突然引上
二割乃至四割引上은無理라고
借地人結束陳情準備

【釜山】부산부범일정(凡一町)칠백이십일번지 부근일대 약삼천칠백여평의토지에는 각공장직공급 로동자등사백여호가 살고잇는데 수일전에 그토지소유자인 부내 부평정(富平町)사는 난파송대(難波松代)씨로부터 시일을부터 지료(地料)를 종전에십전내지 팔전하든것을 십사전내지 로 납입하라고 통고가왓다한다 그래서 주민대표수씨가 토지관리자인 미택(米澤)씨에게 이부근에잇는 다른토지에 비교하야 보건데 종전의 지료도 오히려 비싼데 사할내지 이할이상한다는것은 부당하니 종전대로하야 달라고 교섭을하얏스나 듯지안흐므로 지주에게직접 교섭하고자 대표자 김선구(金璿九)문두광(文斗光)등삼씨가 난파씨를 차저갓섯는데 관리자에게 일임하얏다는 리유로 만나주지를 안흐므로 할수업서 지난십칠일밤에 주민대회를개최하야 선후책을 강구하고자준비중이던바 경찰의 중지로하지못하얏스므로 각관계당국에 진정하고자 방금준비중이라는데 이제각관계자들의말을 듯건데 다음과갓다한다

借地人某氏談 참어요합니다 종전의지료(地料)도 이부근다른토지에 비교하야 비싼데도 불구하고 사할내외가량비산한다는것은 부당천만한일이아닌지 이곳에 사는주민의 대부분은 하로 사오십전밧게 수입이업는 극빈자들이라 지료사할이상은 중대문제이옵시다 우리는 최후까지항쟁하겟습니다 운운

管理者米澤氏談 지료를 인상한것은 사실입니다 종전의지료는 잠정적으로 정한것이므로 비교적헐하게 한것이옵시다 그러므로 금번인상한것은 결코무리한것은 아니라고생각합니다 운운

鎭興市에小火

【鎭興】[illegible] 밤중에 불이나서 자든사람의가 숨을뒤거하얏 지난십칠일 새벽 세시경에 한남영흥지 [illegible] 영 [illegible] 적지실에서 불이나서 대소동을 일으켯는데 당지소방조원의 필사적소화로 불은진화되엿스며 손해는 약백여원가량되리라는바 원인은 [illegible]에서 발화한듯십다고한다

光州에惡疫猖獗 避病院超滿員
小學校는休校까지

【光州】광주부내는 최근래에 볼수업는 악질이성행하야 일반부민을 공포케하고잇는바 그로인하야 광주도립의원소속 피병원은 대만원으로 정원이십이명에 초과가 발서수삼명이나되야 수용할수업는 형편에잇는데 그피병원에 오지안한사람이 부내에서만도 허다하므로 광주서에서 부의생계(府衛生係)와 협력하야 림시피병원을 증축하는등 방역에 분주한다는데 동병원에수용된 병명은 장질부사십칠명 성홍열[illegible] 리질일명으로 전부이십[illegible]이나 이외에도 허다하다하며 광주소화교는 십[illegible]일부터 림시휴교를하엿다한다

沙里院初有의 經濟大講演會
本報支局主催
演士 本社主筆 徐椿氏

【沙里院】우리인간생활에 잇서서 가장귀중한 원동력이 되어잇는 경제에대한 관심과지식이 결핍함을 통감한 본지국에서는 사계에 명성이놉흔 본사주필서춘선생을 사리원독자 일반에게 경제사상을 보급시키기라는 의도에서 오는십일일오후칠시에사리원공락관(沙里院共樂館)에서 경제강연회를 개최한다는바 사리원유사이래 초유의 모임인만치 대성황을 이루리라고 예상하며 만흥의 대를 가지게된다

都計案可決同時 關係諸事項協議
十七日木浦府會에서

【木浦】소화사십년까지 인구십사만명을 목표로 대목포의도시계획을 총독부내무국에서 그성안을발표하엿슴으로 목포부회에서 그성안을 불가문한다함은 이미보도한바이어니와 목포부에서는지난십칠일에 부회를열고 시가지계획구역 동가로망(街路網) 토지구획정리시행지구(土地區劃整理施行地區)등의 원안을 만장일치로가결한후 각이시장실에서 십일년도추가예산원안 원과 제이회공채발행 도로개량공사비충당 기채(道路改良工事費充當起債)등을 협의결정하엿다한다

第一里少年會主催 少年蹴球大會
舍人支局後援

【舍人】평남 순천군 자산면 제일리소년회(順川郡慈山面第一里少年會)에서는 제일회로 서조선소년축구대회를 오는이십삼일에 본보사인지국후원으로 개최케되여 방금 그준비에 분망중이라는바 대회장소는 제일리압공설구장이라하며 특히 만흔참가가잇기를바라며 신청금은 매단에 오십전식이라한다

館後里紙物商店에 覆面强盜또出現
例의헌빗"까ー제"로覆面을하고
平壤署緊張裏活動

【平壤】범죄의도시라는 반지갑지안흔 칭호를듯고잇는 평양부내에는 강도사건 강도살인사건등이 련거퍼 일허나 이십만부민을 놀라게하고 따라서 경찰관들은 밤잠을 못자고 범인수사에 전력중인데 십팔일새벽 네시경에 부내관후리(館後里)백십구번지 지물상(紙物商)한동엽(韓東燁)의집에 례의 헌빗「까ー제」로복면한 괴한이 침입하엿섯스나 집안사람들이 마주소동을 하기때문에 아모것도못가지고 다라나고마럿다 최근에 발생한강도사건의 범인이 일상히까ー제로복면햇든만큼 이번에침입햇든 괴한도 동일한 자로이추정하고 명수사를 계속하고잇다

沙里院에도强盜

【沙里院】지난십칠일 오후여섯시삼십분경에 사리원서리(沙里院西里)일[illegible]번지 중화상회(中和商會)에 젊은자들이 물건을사려왓다고 하면서 드러와서 말을하다가 돌연히 무지무시한 단도를 빼어들고 그상회주인 리용[illegible]을 협박하면서 돈을내라고하엿스나 그주인은 대담하게 강도가 드러왓다고 웨치는 통에 그저다라나므로 곳사리원경찰서에서는 비상선을 느리어 엄탐중 그이튼날 오전한시경에 서리모려인숙(西里某旅人宿)에 잠복하고 잇슴을 발견하야 사건발생한지 겨우여섯시간만에 곳 체포되엿다는데 범인은 평양부서성리 칠칠팔번지(平壤府西城里七七八番地)에사는 김치현(金致賢)으로서 그신분을 조사해보경찰당국자는 상당히 여죄가 만흐리라고 미루어보아 엄중한취조를 진행중이라한다

金穀羅女史美擧

【延安】경성이원정삼백팔십칠번지 사는 김산라(金撒羅)여사는 고향인 연안으로전향정리에 도라와 향정학원을위하야 토지이백여평을 자진회사하엿다는바 교원일동은 감격함을마지안는다한다

繼母虐待못이겨 青年飮毒自殺

【沙里院】예로부터 간악한 계모의 학대와음모로 빼앗긴 젊은생명이 얼마나만흔가 사리원에서도 계모의 아래에서 가진학대에 못이겨 애처러운 자살사건이 생기엿스니 그내용은아래와갓다 젊은이십칠청춘을 일코 죽지안코는 견될수업는 그는 사리원부리팔칠번지에 사는 정배근(鄭培根)(二○)으로서 이 어머니를일코 계모아래에서 일즉

軍事秘密漏洩防止로 高地帶撮影嚴禁

【平壤】군사상비밀이 루설될것을 방지키위하여 평양요새(要塞)를중심으로 허가업시 요새촬영을하는것을 금지햇든데 이번에는 다시 평양비행장을 중심으로하는것도 금지하기로되여 평양 지대의촬영도 금지하기로되엿다 낙랑헌병분대에서는 관계각서에 대하여 통첩을발하는동시에 고지대에서의 촬영을 엄계하기로되엿다 촬영을 금지하는구역은 대동강우안(大同江右岸)주암산(酒岩山)에서 대동문(大同門)에 이르는 연안일대와 이것과는반대로 밀교동(密橋洞)에서 의암리(衣岩里)에이르는 일원인데 주암산 유람도로의고지대 최승대(最勝臺) 을밀대(乙密臺)청류정(清流亭)[illegible]등에는 촬영금지의 표식을세우기로되엿고 부내의 고층건축물인 화신(和信) 삼중정(三中井)백화점옥상에서의촬영도 엄중하게되엿스므로 평양시민은 물론 외래의 유람객들도 주의하여야할것이다

地方人事

▲沈敎昇氏(慶興學校長)學校用務로來(公本報公州支局來訪
▲禹容濬氏(公州反浦面長) 同上
▲鄭寅德氏(本報加平販賣所主任) 今月十六日加平邑自宅에서 結婚
▲李昌培氏(片倉會社安立自動車部 立石出張所主任) 新任人事次本社立石支局來訪
▲金天濩氏(木浦祥農合資會社支配人)新任人事次 本報木浦支局來訪
▲鄭昌斗氏(鐵山金融組合副理事)榮轉人事次本報全州支局來訪
▲李興雲氏(東一銀行群山支店支配人代理) 新任人事次本報群山支局來訪
▲松浦纘治氏(前楊平郡庶務主任)水原郡榮轉人事次本報楊平支局來訪
▲吳世元氏(前東一銀行長湖院支店支配人)東一銀行本店轉勤人事次本報長湖院支局來訪
▲曺義赫氏(前東一銀行安城支店支配人代理)東一銀行長湖院支店赴任人事次本報長湖院支局來訪
▲李貞淳氏(大昌印刷株式會社常務取締役)陰城支店轉勤人事次本社鐵川支局來訪

社告

今般本社에서左記와如히支局을設置하엿사오니照亮하시압 朝鮮日報社 白

茂朱支局 位置 茂朱郡邑內 支局長 金珏均

江東支局 位置 平南線勝湖里驛前 支局長 金重實

平康支局 位置 平康郡邑內 支局長 徐明勳

丹城支局 位置 淸山郡丹城市 支局長 李炳敎

撫順支局 位置 撫順西十條通九六 支局長 文明善

今般本社에서左記와如히分局을支局으로昇格하엿사오니照亮하시압 朝鮮日報社 白

遮湖支局 位置 咸南遮湖港 支局長 全箕衡

謹告

忠州支局 右新任 總務兼記者 徐相庚 右新任 記者 嚴章煥

報恩支局 右解任 寫眞班記者 元春常

江陵支局 右新任 記者 崔鋼來

白川支局 右新任 記者 洪善約

金川支局 右新任 顧問 金鎭燮

遂安支局 右解任 總務兼記者 金仁鎬 右新任 總務兼記者 金相實 右依願解任

沙里院支局 右新任 顧問 印廷洙 顧問 朴元鎬 右架設 電話 三二一番

載寧支局 右依願解任 新院分局長 閔元植 右新任 新院分局長 吳敎翼

韓山支局 右新任 記者 林鍾憲 右依願解任 記者 朴成顯 記者 吳大泳

全州支局 右架設 電話 七一三番

光陽分局 右新任 寫眞班記者 陳珉英

祥原分局 右新任 顧問 桂哲淳

慈山支局 右新任 集金員 全鐵柱

鎭南浦支局 右新任 德洞分局長 金顯模

新安州分局 右新任 總務兼記者 崔岡恒 顧問 金基化

郭山支局 右新任 記者 朴熙景 右新任 記者 蘇勳埰 同 姜鎔珍 右解任 同 金斑翻

榮州支局 右新任 豊基分局長 禹珍八 右解任 豊基分局長 李南均

晋州支局 右新任 記者 李甲順

梁山支局 右新任 總務兼記者 金德久

三千浦支局 右新任 記者 林洪贊

甲山支局 右新任 記者 金昌林

淸津支局 移轉位置 淸津府浦項洞二四○ 右架設 電話 二六五七番

山城鎭支局 右新任 總務兼記者 金光鉉 寫眞班記者 張基涉 右依願解任 寫眞班記者 金重煥 寫眞班記者 朴根實

神戶販賣所 右新任 廣取販賣所 主任 李琪林

間島支局 右新任 老頭溝分局長 鄭于哲

哈爾濱支局 右架設 電話 二八七三番

時計材料附屬品眼鏡 一新舍 京城府鍾路一丁目一○(電話光化門一五八八)

新築家屋賣買開始 東小門外敦岩町櫻ケ丘에 分讓地를 [illegible] 朝鮮式瓦家 [illegible] 價格은一間一百五十圓式입니다 京城府新堂町櫻ケ丘(獎忠壇公園隣接地) 朝鮮建築社 電話本②五五六二番

간질 責任治療 [illegible] 京城府新設町七一 京城灸院

謹告 [illegible] 十四日午後一時七時間 [illegible]

朝報案內

恩給 最大限立替 京城光化門通一四七 朴商會

店員 普通學校卒業 十五六歲 [illegible] 皮革商會

社員 募集三十歲以上中學卒業 [illegible] 日光堂藥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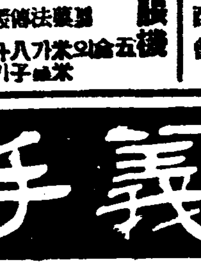
조선의 가정공업 第一 第二 萬國 株式會社

金儲 大阪西淀川區 石井機械製作所

羊皮 新産品多數 滿蒙特産物商會

돈벌기大王 リード式 膨脹機 兒島製作所 大阪市東淀川區

告示 一、墳墓의位置及基數 大同郡西川面西龍里一○三番地ノ一墳墓基數弐基 [illegible] 昭和十一年十一月十五日 大同警察署長 白



新案特許 淋病治療器
淋疾이거든、藥物療法에 失敗했거든、最新科學療法으로……
京城古市町 製造元 東邦科學興業株式會社
京城昌成町七三 發賣元 平山幸運堂

生徒大募集 公認 東亞自動車講習所
◆運轉手試驗ニ合格セントスル者ハ來レ ◆學費最低廉
◆今ガ入學ノ絕好時期 ◆就職無料紹介
場所 京城府若草町橋本フォード自動車販賣店內
經營 元京畿道運轉者試驗官主任警部 溝見良
本局六七○四

植村外科病院 院長 醫學博士 李丙勳 副院長 河野武 外科一般 レントゲン科 入院隨意 京城府永樂町二丁目八五 電話 本②○二七○番 自宅用 本②一七九二番

男女誰でも本校講義錄を自宅で學び製藥者の資格を取れば藥劑師と同樣どんな藥も自分で造って賣出せる。ハダカ一貫の無資本でも自宅で手輕に出來て月二三百圓はラクに儲かる。一般家庭の內職によく本業に更によし、又青少年の立身成功の近路である 詳細案內書 ハガキで申込次第 無代で進呈す
クスリで面白い金儲け 思ふ藥が自由に出せる
東京市芝區新橋六の四八 日本通信製藥士學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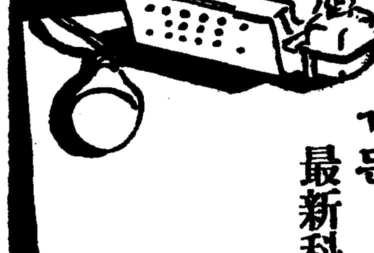
義手義足 義手義足 各種脊椎カリエスコルセット 各種脫腸帶 上参員技術第次御ハ地方遠隔 呈進代無錄型 京城府長谷川町百參番地 高野義肢製作所 電話本局②0911·1126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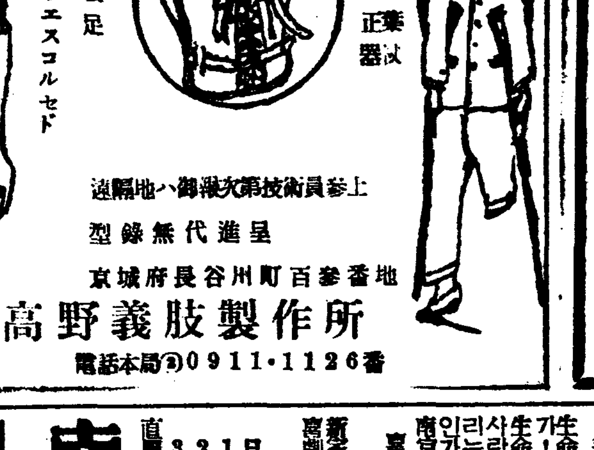
スケート スケート附屬用品 京城本町一丁目四九 都賣 藤野商會 卸賣部(京城運動具商會)

寄生虫이 잇는 同胞는모다 七千萬 虫下劑 マクニン

東洋劇場 西大門町 電話光二一五四
十八日封切特別大興行 日本名作週間 次週特別豫告
生命 悲劇 三幕 新家庭에脫線이나홈、 嘗日 울기는웨우나요 一幕

團成社 사랑의彈丸 美人自叙傳 小公子





內外經濟諸問題 ②

小汀氏座談會 問答內容

▲金融統制＝大藏省은 公債消化에 全力을가지고 (銀行預金을까내어 株式에 投資하는 等으로 보아) 銀行統制에 熱心하는 것도 양이나 量、最合併가튼 것도 時期尙早이오 大藏省은 統制에 걸려잇다 그러나 公債消化에 걱정이 업는것을 알게되면 銀行統制도 不遠케될것이다。

▲中國의 幣制改革＝波瀾은 잇겟스나 根本的으로 잘 되어갈것이오 幣制改革은 今後政治上 變故가 업는限 順調로 되고 爲替도 動搖가 업슬것이다。

▲法幣下落不足＝幣下落이 不足하야 通貨가 아즉도 安定되어잇다 할수업고 한번더 切下할것이 아닌가。

▲北中市場＝北中은 正常的貿易으로 變化되어 갈것이다。

▲有價證券移轉稅＝萬分五株式、社債千分一은 實際手數料가 그러케 못되니 大藏省의 認識不足이다。

▲取引所稅＝有價證券의 流通을 限하는것이다。三百億의 有價證券을 自由로 賣買케못하면 그는日本經濟界의 重大問題인데 大藏省도 업는 決定을못하고 적취매고잇다。

▲土地評價過大＝日本가튼조고만나라의土地를 三百五十億으로 하는것은 過大한것이다。

▲米國의銀政策＝米大統領의 任期되어 後는 그 前가격 放置되기 어렵다 그러나 就任하야 金解禁하는 것이 ……

▲米國三權分立廢止＝大統領이 ……

▲金價의大勢＝ ……

▲取引所의改革＝日本의 取引所가 ……

▲議會改革＝政黨과軍部라는 ……

▲行政機構改革＝ ……

▲商工內閣前途＝ ……

朝鮮產品의…… 海外輸出에 注力

이미 歐米近東各地에 見本輸出 三井、三菱兩支店에서

對外貿易의 振興에 關하야서는 總督府 貿協과 商議等에서 各其積極的計劃을 研究中인데 最近이와 呼應하야 三井物產 三菱商事等의 貿易商側이 朝鮮產品의 海外輸出에 特히 對滿을除한 諸外國에 積極的으로 關心을 한것이 注目된다

即三井物產三菱商事等의 朝鮮內業務는 從來輸移入 貨物의 取扱이 本位이엇다 前者는人蔘、生絲、農產品關係後者는水產業關係等의 輸移出取扱을하얏스나 金額으로서는 微微한것으로 輸移入一手의 觀이잇섯다

最近에 至하야 兩者에서는 纖維工業品、水產製品、果實等輸出品에 對하야 調査하고 歐米近東의 各地에 見本輸出을試하얏다 兩者의 이動向은 所謂振興策의 机上論과 相異하야 全世界에 業務網을 張한만큼 注目된다한다

朝鮮의貿易振興은 農產品擴充부터

工業生產品輸出時期尙早

◇……大饗三井支店長談＝机上의 貿易振興論은 別問題로하고 朝鮮의 對外輸出促進이란點을 考慮하여보면 가장 問題가 되는 것은 무엇을 輸出할가에 잇다 最近 工業勃興에 依한 若干의 生產品이잇고 特產品의 種目도 不少하나 大大的으로 海外進出을 試하게된다면 十指에 足한것이 업는現狀이다 勿論 工業勃興에 依하야 輸出의 將來가 多望이라하나 極히 寥寥하다 朝鮮의 對外貿易品으로서 量的으로나 質的으로나 가장 有望한것은 農林水產關係이라고 생각한다 朝鮮의 土地關係上 生產力을생각하면 먼將來는別問題이지만 有畜農業의擴大 畜產工業의促進 養鷄養兎等의 副業飼育의充實擴大 果樹 蔬菜類의加工工業助長 其他林產物 水產物의 開發이라는것이 貿易振興策으로서近道이라고생각한다 工業生產의貿易振張의期待를行함은 時期尙早라할것이다

貿易調査委員會 會則發表

貿易調査研究會의會則은 十九日貿易協會로부터 如左히發表되엇다

第一條 本會는貿易調査委員會라稱함

第二條 本會는社團法人朝鮮貿易協會의事業을輔助하고 朝鮮貿易의振興을圖함을目的으로함

第三條 本會는前條의目的을 達키爲하야 左의事業을行함

一、海外市場의調査研究

二、輸出好望品의調査研究

三、貿易助長施設의調査研究

四、其他貿易에必要한調査研究

第四條 本會의事務所는 社團法人朝鮮貿易協會事務所內에置함

第五條 本會는 貿易에關한智識經驗을 有한者로서 組織함

第六條 本會의事務를 處理키爲하야 幹事若干名을置함 幹事는 會員의 互選에 依한者로함

第七條 本會는 依賴에依하야海外市場의 出張調査를行할수잇다 前項調査에要할 經費는 依賴者의負擔으로함

第八條 本會는篤志家의寄附를受할수잇다

그리고 研究會委員으로 賀田商議會頭外 二十二名을 委囑하리라한다

胡麻「미-루」 米國에初輸出

齋藤合名에서는 胡麻粉(胡麻미-루)를 來三十一日仁川積으로 一千俵를 米國向輸出키로되엇는데 朝鮮產胡麻미-루의 輸出은最初로 用途는 飼料이라한다 이것은 專國製粉에서 着手한植物油工業의 生產品으로 今後도繼續輸出할 豫定이라한다

註＝胡麻「미-루」라는것은 胡麻의搾粕을 粉碎하야 가루로한 것이다

朝鮮重要產統 勅令으로施行

明年一月中旬頃實施

重要產業統制法의 朝鮮施行問題에 關해서는 세멘트業에 限하야 實施하기로 總督府의 方針이確定하고 同法施行에 關한 法律的疑義에 關해서는 目下渡東中인 穗積殖產局長 美根審議室事務官 岡信商工課事務官과法制局當局과 折衝中인데 大體法律그대로를 勅令으로 朝鮮에施行하는데는 意見이 一致되엇스나 이것의運用 業種의 指定等에關해서는 幾分技術的인 疑點이 殘存하야 果然 그대로施行될는지 그럭치안흐면 別個로 朝鮮產業統制令이란 制令을 發布할는지 議論이잇는모양인데 總督府로서는 同法에 이미 外地施行方針을 決定하거로되엇것인바 指定業種 商工大臣總督의 權限 委員會等에 關해서는 目下渡東中인 朝鮮事情을 强調하기로 되엇다 勅令으로 그대로 되어잇스므로 同法施行은 從來의 勅令에 依한것 또는 制令과는 全혀形式을 달리하야 朝鮮의 法令施行에 新例를 開하게될모양으로 此等法律的疑點이 明確하게되고 內外當局의 意見이 一致한 境遇에는 可及的速히 實施할 意向인데 늣저도明春一月二十日의 議會再開前에는 實施할 模樣이다

北鮮製紙順調操業

北鮮製紙의 吉州工場은 去十五日 試運轉하고 繼續하야 操業을 開始하엿는데 工程은 자못 順調이다 藤原專務는方針協議를 爲하야 十八日 渡東하엿다

南大門市塲商人 聯合會役員會

中央市塲問題로

日前京城府中央卸賣市塲開設案이 發表되엇슴으로 南大門市塲商人聯合會에서는 그對策을講究키 爲하야 十九日午後六時食道園에서 役員會를열리라한다

煙草値上으로 增收一割二分

京城販賣所의成績

專賣局에서는 煙草小賣價改訂後의 賣行狀況에 對하야 全朝鮮的으로 調査中인데 十二月十日頃까지에 判明되……

……게되엇스나 京城販賣所管內의賣行은 高級品으로부터 下級品에 이르기 低下한것과 一部 品種에 依한 모양으로 豫定의 二割增收에는 達치안코 八分減의 一割二分增加量의 程度이다 또아직 現在의 小賣相場에는 改訂定價가 變更되어잇지안키때문에 歲末의 贈答品에는 幾分 影響하야例年부터 賣行은減退할것으로보고잇다

無水酒精專賣制

一千萬圓製造會社新設 十三年度에市販

燃料酒精製造의 企란法에 依한 事業은 압서 東拓昭和酒類(神戶)及 專賣局과 協議中이던바 近近 一千萬圓의 株式會社를 新設하야 明年度부터 本格的으로 着手하기로되엇다 大體 事業計畫은 木屑原料로 부터 七萬石의 生產을 行할計畫으로 파텐트는 東拓이 買收出資하고 其他의 工場은 昭和酒類가 擔當할터이다 그리고製品은 十三年度에 市販할터인데 專賣를 行하기로되엇다

正租品質不良으로

未檢查品金融中止說까지擡頭 金融業者對策에苦惱

今年新穀期의 正租品質低下는 各方面에서 問題가 되어잇는데 果然 商取引과 米穀金融上의重大問題가되어 殖銀、東拓等의融資方面에서도 推移를 憂慮中이다 今年의 出廻正租를 보건대 前年에 比하야 倍額의原料正租를 너허도 一石에達치안코 또 品質은 合格不能이란 狀況이다 따라서 目下 各地의 正租市勢도 七錢가량 의것으로부터 三錢圓의 市勢를 내고잇는것까지 따라서 正租取引은 從前과가튼 電話電報取引은 危險하기때문에 全然 行하지안코 見本賣買가되어 金融側에서는 正租鑑定을行할수업서 그對策에 困惑하고잇다 關係側에서는 未檢查正租의 金融中止까지도 考慮하고잇는 狀態로 波及할바를것을 念慮하고잇다

米穀應急低資 三千萬圓容認

四金融機關에配定

本年度의 朝鮮總督府의 米穀應急低利資金은 大藏省預金部에서 五千萬圓을 要求中이든바 三千萬圓이 容認되어 公電이잇서그 配定額은 如左決定하얏다

朝銀 六九〇萬圓

東拓 六九〇萬圓

殖銀 一三二〇萬圓

金組 三〇〇萬圓

米資流入으로 金融硬化緩和

朝鮮內金融市場은 年末을압두고 日本內地金融市場의 硬化로 一般으로 引締狀態가되어 銀行도 相當히 警戒的인데 三千萬圓의 米穀應急低利資金이 一兩日中에 各各 受入되게되엇스므로 이低資의流入으로 이金融硬化狀態는 相當히 緩和될모양이며 金利가튼것도 一錢二厘라는 低利資金은 一般 貸出金利上에도 相當히 큰影響을 投할것이라고 銀行方面에서는 觀測하고잇다

朝銀의限外發行

年末까지繼續?

朝銀에서는 十月中旬부터書市場의 引締로 三千萬圓을 限度로 限外發行을 行하야 現在까지에大體 限度까지의 發行을하엿는데 今後年末에 亘하야米穀資金其他의資金需要期에 直面하야 이미十八日經越의 朝銀券發行高는 一億七千二百萬圓에 達하고잇는 情勢인것과 一方日本內地書市場은 다시引强할 傾向도 업고 正貨準備로서의日銀券取入이 依然 窮屈하게되므로 今後 年末까지 繼續하야限外發行을 繼續하야 이를 調理할 方針이라한다

朝鮮米運賃引下

關門、西朝鮮間만

朝鮮米輸送協會에서는 小型汽船의 對抗上 穀物協會聯合會의要求를 들어 關門西部朝鮮間의運賃을 平均二圓五十錢引下하야十月一日에 溯及하야 實施하기로 決定한바 改訂運賃은 如左하다

新義州七三、五〇 南浦(海州)六五、五〇 仁川(群山)六二、五〇 木浦六〇、五〇 麗水五七、五〇 馬山四四、一〇 釜山四〇、八〇 浦項四七、八〇

米統聯役員任命

米穀自治管理實施에 備할地方米穀統制組合聯合會는 咸北을除하고 十二道가設立되어 聯合會會長과 副會長도 慶北 京畿、江原의 三道를 남기고 他九道는 如左히 任命되엇스며 未決定의 三道도 近間任命되리라한다

	會長	副會長
忠北	吉岡	三浦 閔泳殷
忠南	小池 泉	庄田眞次郎
全南	姜弼成	近藤 一二
全北	古市 進	猪狩 泰介
黃海	佐佐木忠右エ門	吳世爀
平南	白石光治郎	林 寬錫
平北	關口 聰	高一淸
咸南	佐佐木高治	全夏洗
慶南	嚴白雙	鄭 淳

煙草賣渡高

專賣局十一月上旬製造煙草賣渡總額은 一百三十七萬八千八百三十二圓으로 前年同期보다 一割四分七厘의 增加이다 이것을 各地方局別로 示하면 京城五十六萬二千七百二十一圓 全州三十萬五千五十四圓 平壤二十四萬七千七百九十圓 咸興二十六萬三千二百六十七圓이라 한다

經濟寸鐵

○ 大豐作數字를 發表한 朝鮮米作은 正租品質不良으로 金融이 잘안되고 賣買가 不進하야 波及되는 影響이 甚大

○ 實際凶作에다가 正租賣買도 어찌할가 그나그 뿐이가 玄米調製에는 倍나 正租를 要하다니 기막히는 노릇

○ 三井、三菱兩大財閥이 朝鮮產品海外輸出에 注力하리라고 잘될어보지오 너무 억울케만말고

○ 重要產業統制法은 勅令으로直接朝鮮에 施行하려라고 이러다가는 法城이 아조업서지지나안흘가?

○ 土木協會再建披露宴에 法務局長 答辭는 皮肉이라고 수군수군 土木談合事件과 對照해서……

取引停止 (十一月十六日)

▲京城府南大門通四丁目七六 大洋貿易商會 崔庭▲綿物商 京城府黃金町二丁目一七一 三登社 黃瀨奎▲京城府蓮建町三二四 徐廷一 ▲雜貨商 京城府明治町二丁目八 太江淸

商況 [十九日]

株式 東新高나 不勢

前塲底堅 昨日一息後를바든 今朝의東新은 百四十圓六十錢으로 八十錢低로寄付하엿고、日產은 十錢低인八十三圓九十錢에寄付하엿는데 雜株는 玉整理에 들어간모양으로 東阪兩地의報道는 雜株一齊低를告하야 寄付에는 東新도軟化되어 人氣에 追隨하야 低寄되엇스나 東新만은底堅裡에推移되어 結局四十一圓十錢에大引하엿는데 日產은 四十錢低인八十三圓五十錢 鐘新은 昨後塲止塲보다 三十錢位인百七十九圓九十錢 朝新三十五圓七十錢에各各大引되엇다

▲東新 一四〇・四〇(寄) 一四一・一〇 ……

後塲强調 後塲은 東新百四十一圓五十錢 日產八十三圓六十錢 鐘新百八十圓丁에 大引하야强調이엇다

東新單獨堅調

再昨爆發後의 東新이 昨日에는 一息商狀으로變하야 자못不透明한鈍狀을보엿는데 今朝에는 諸株一齊低寄에늘러 東新도百四十圓〇〇로低落되여 雜株에追隨되어 惡化할것이아닌가하는感이 不無하엿스나 意外로 諸株一齊不勢의塲面에 東新獨高의現象을 보이게되엇는데 이點은 特히注目할點인가한다 諸株가一齊 玉整理로惡化하게되다면 爆發한東新은 그反動으로 相當한大幅低下가잇서야할것갓지마는 東新은 도로혀 堅調裡에推移하야 阪地一圓三十錢 東京一圓四十錢으로 强硬味를보엿다 이는 二、二六事件以後 雜株高 東新低로서 一貫해온 現象과는正反對되는現象으로서 雜株賣東新買의反動으로 제야 오게되엇다 如何튼 今後 雜株의玉整理가 어대까지 繼續될는지는몰라도 東新은 反動高後反落?

雜株는玉整理

今朝에는 雜株라는 雜株는 一齊低落하야 大阪短期今朝의 止價는 昨後場止塲에 比較하야 日產八十錢低 帝人九十錢低 鐘紡五十錢低 日魯一圓七十錢低 等一圓低등으로 人氣가 一般的으로軟化한것을 可히알수잇는데 이는 別다른材料에 依한것이아니오 너무나오래동안 買進되엇든 이모로 當然히올 玉整理가 始作된것이며 或은 豫測되고잇다 實物에잇서서도 前者에 整理低落한 電力株 砂糖株 고무株 纖維株等은 比較的 底堅하고 其他의諸株는 一齊不勢를 告하게되엿는데 今回의 整理는 相當히 深刻한바가잇슬것으로 豫想되고 아직도 相當한 低價를 볼것으로 보는모양이므로 徐徐히 整理塲面을 精觀하다가 行動함이 可하리라고한다

實物前塲取引

▲大同產業 ▲日本曹達 ▲同新 ▲朝鮮製鍊 ▲日華紡織 ▲鹽水港製糖 ▲라사工業 ▲滿東重工業 ……

東京國債崩落

▲甲五分利不申 ▲二回四分一〇〇、一〇 ▲佛貨一九五、一五 ……

大阪國債市塲

▲甲五分利 一〇〇二〇 ▲第三五分 一〇〇七五 ▲二回四分一〇〇七五 ▲一回四分一〇〇八 ▲佛貨一九五一五 ▲米貨六分半 三四四五〇 ▲滿洲公債一〇〇二〇

期米 嫌氣踏上 反高

前塲反高 昨後塲阪地二十九圓三十一錢止와共히 二十七圓三十五錢에塲을止한 當市塲은今朝에入하야 阪地初付二十九圓三十錢인 一丁低落을擲하고도 二十七圓三十六錢인 反히 一丁高로塲을始한後 阪地頹漸高調로四十二錢에止함을作하야 四十七錢의最高로强硬히塲을止하엿다

當分保合乃已 南方모다警戒

再昨日은 阪地先限 二十九圓三十七錢 當地 二十七圓三十五錢으로 一段低落을 告한後 反히 强味를 添하야 兩地共히 三十錢臺로 反騰하엿스나 昨日은 阪地最高四十錢 當地亦四十錢으로 一段高價를 示한후 하엿스나 後塲止際에 入하야 阪地는 三十一錢 當地는 三十四錢까지 反落하엿스며 今朝에至하야는 阪地初付 三十錢으로 低然四十錢臺로 昂騰하고 當地三十六錢에 初付하야 또한 四十錢臺로 返戾하엿다 此二、三日間의 十丁範圍의 保合은 硬軟兩方으로 하야금 更히 作戰할 時期조차 減殺하고 말엇다 市勢의 步調로보아서는 一段高價를 示하지안코는 低落키 難할것갓고 正米의事情으로 보아서는 時期가 時期이마치 實買는업시 漸次山積의 威壓을 加하고잇슴으로 買方으로서도 警戒를要할지안흘수업는 狀態에 잇다 그럼으로 아즉도 어느時期까지의 保合은免치못할것갓다果如何?

朝鮮期米取組內容

(單位百石) ▲賣方 ▲買方

[illegible]

六感

株……東新爆發後에 雜株整理가 시작되어 또 買方은氣迷狀態▲그러나 東新이 容易히 雜株低에 追隨될것갓지안흔결▲月末金融만은 아모래도 窮屈을不免하리라는 情報▲그러면 東新도 아모런 活躍은 期待키難할듯▲東新보다는 雜株를 低價에서 買拾함이 有利할줄 한데 若何?

米……二、三日間十丁範圍에서 釘着不動하더니 今朝에入하야는 一段反撥을 示할듯한 形勢를 보이고잇다▲阪地保合의 限界라할수잇는 四十錢當地亦四十錢을 上廻하엿스니 結局은 保合上放?▲正租는 三萬叺이나 딸아서 山積하엿스나 實買가업고 딸아서 採算上 玄米賣는 造할수업스니 米價는 畢竟弱勝하고야말모양▲何如間 市勢의 步調가 一段反撥을 告하지아코는 低落키難할것갓다 結局一高後反落?

昨今正米市況

正租出廻漸增

昨今 仁川正米市塲에는 玄米出廻는 二千五百叺에 不過하나 그러나 正租만은 每日出廻가 繼續되어 三萬餘叺에 達하는 相當한數字를 보히고잇다 正租一斤에 七錢七厘五毛로 取引되고잇는데 正租의市勢가 三厘假量의 低落을告하지안코는 採算上玄米를 製造할수업다고한다 그럼으로持主側으로서는 絶對로 低價에 賣應치안는 意向인데 正租價의 低落을 期待하는때에는 正租는 딸아서 玄米의 製品이 稀少할것이오 또 渡米의 荒渡도 如意치못할것임으로 結局米價는 更히 騰貴할餘地가업시 當限納會期의 迫을 共히 月末의 一高를 示할지 않을가한商談도잇다

後塲續高

後塲은 二十七圓五十五錢인 八丁高로 …… 止塲하다

今日財界 (十九日)

◆米 仁川期米 先限 …… 大阪期米 先限 …… 東京期米 …… 正租(仁川)二等 …… 京城一等白米 …… ◆市中金融 一厘 ……

◆株 東新 …… 日產 …… 大阪綿紗 …… 大阪人絹 …… 大阪砂糖 …… 고무FAQ ……

宮島前塲情報

【大阪堂島】新材料待이나 當限中心으로 空賣側의 蹈渡米過剩에서 當限越 …… 生絲緊縮을 人氣的으로 ……

[illegible]

各地正米

京城同調 定期不勢에 市況은 沈靜을 繼續하고 賣買는 全혀不振이다 ⑥三等二八四〇 四等二八一〇 一等白米二二五〇

仁川不變 日本內地의買傍觀으로 賣物、糯米側이 모다買添치안허 取引은 極히閑散하다 一方船積正租의 滯荷는逐日增加되고잇다 ⑥三等 二八、四〇 四等 二八、一〇 一等白米 二二〇五

釜山保合 續崩落의 後이므로出廻는 旺盛하나 無碍히賣價을不滿하야 市勢는 前價와大差가업다 市塲賣物은 五千叺이 賣來되엇스나 握物格共히 잘賣進되어 市況은 堅調를 보엿다 四等二八、〇〇 四等二七、七〇 一等白米二二、〇二

大邱奔落 正租出廻薄으로 原料難인때에 昨日來 換金急의 賣物이 벗적 增加되고 賣買도 比較的 順調로 進行되엇스나市勢는 一擧에五十錢崩落을 演出하엿다 四三等二七、七〇 四等二七、四〇 一等白米一一、四〇

群山同調 阪神方面으로부터 當限準備米의 買付가조금식 잇스나 依然한 奧地出廻旺盛으로 積極的으로 不買하고 兼하야 定期不勢에 市況은 保合이엇다 ⑥三等 二八、〇五 四等二七、九〇 一等白米 一二、五〇

木浦底堅 繼續하야 日本內地의買氣는進捗되지안흐나當用方面의 實需買와 產地의賣藉諸人氣繼續으로 市況은 底堅하야 氣配十錢高이엇다 ⑥三等 二八 四〇 四等 二八、一〇 一等白米 一二、〇〇

大阪金利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金買入價

[illegible]

東京市中金銀價

[illegible]

京城市中金銀價

[illegible]

京城正米 (十九日)

[illegible]

仁川正米

[illegible]

京城穀物

[illegible]

京城絲糸布

[illegible]

京城綿布

[illegible]

綿油沖價

[illegible]

株式 (十九日)

◆朝取短期◆ ◆京取短期◆ ◆東京短期◆ ◆大阪短期◆ ◆東京現株◆ ◆大阪短期取組◆ ◆精定代引日步◆ ◆朝取短期賣買高◆

[illegible]

期米 (十九日)

◆朝取期米◆ ◆大邱期米◆ ◆大阪期米◆ ◆木浦期米◆ ◆群山期米◆ ◆釜山期米◆ ◆朝取期米賣買高◆ ◆大阪正米期米◆ ◆東京期米◆ ◆大阪市中在米高◆ ◆日本各地期米◆ ◆各地正租市勢◆

[illegible]

商品 (十九日)

◆大阪綿紗◆ ◆大阪綿花◆ ◆各地人絹◆ ◆大阪人絹現物◆ ◆大阪砂糖◆ ◆日本豆粕市勢◆ ◆滿洲商況◆ ◆大連特產市勢◆

[illegible]

米期 東 趙俊鎬取引店 仁川海岸町三丁目

土金 分析賣買 石金 大陸商會 京城府茶屋町……番地 電話本局②三一一六番 振替京城一五一五四番